

잡

LAW SCHOOL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20. MAR + APR

전국 순회 설명회 특집호



- KNU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CA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행복이 성공의 열쇠인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알버트 슈바이처
(Albert Schweitzer, 1875~1965)

Contents



- 004 special report _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단 좌담회
- 010 hot issue
- 012 power interview _ 배연관 변호사
- 016 letter from _ 남기엽 변호사 / 송혜미 변호사
- 020 real story _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박진현
- 024 contest _ 제11회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현장 속으로!
- 028 happy lawschool _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김도희
- 032 opinion _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
- 036 health mentoring
- 038 akls news

로스쿨인사이드 PART 01 | 법학적성시험(LEET)이란?

- 040 법학적성시험 개요
- 042 출제 기본 방향 및 문항 유형
- 050 로스쿨 입학 꿀팁

로스쿨인사이드 PART 02 | ALL ABOUT LAW SCHOOL

- 054 로스쿨 개요
- 056 교육과정 소개
- 058 장학금 제도
- 060 특별전형/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 062 실무교육
- 063 변호사시험
- 064 로스쿨 졸업생의 사회진출

[붙임자료]

2020. mar + apr

발행일 2020년 3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김순석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주)그리고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전문 재학생들의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해 2011년도부터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출제·시행하고 있다. 법전문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상관성',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서의 고득점 비결' 등을 알아보고자 2020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영역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판례, 수험서 보다 기본 법리가 먼저다”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총괄위원장&영역위원장 좌담회 개최

법무부가 출제하는 변호사시험(이하 '변시')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출제하는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 (이하 '모의시험')간에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모의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변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나?

최희수 난이도에 있어서는 변시가 모의시험보다 약간 높지만, 두 시험의 출제 위원이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모의시험에 출제됐던 문제가 언젠가는 변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모의시험의 경우 출제위원들이 새로 나온 판례들을 모의시험에 반영하려고 해서 변시 대비의 기능도 한다.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의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변시에서도 고득점 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실질적 관계가 있다고 본다.

권재열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학교에

서 매년 모의시험 성적과 변시 성적 간의 통계를 내고 있다. 작년의 경우 모의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이 변시에서도 성적이 좋았다. 또 모의시험을 종합 시험(졸업시험)으로 대체하면서 커트라인을 설정했는데,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변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향이 있어 두 시험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고 본다. 최근에는 학생들도 모의시험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어, 2학년임에도 모의시험에서 다뤄진 쟁점을 훑어보고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다.

김재봉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두 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 변시의 경우 학생들이 전력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모의시험은 응시횟수가 3회이고 졸업시험의 커트라인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모의시험은 아무래도 변호사시험에 비해 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체로 두 시험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상관도가 높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두 시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모의시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공하는 방법, 변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더 연구하면 좋겠다.

이동원 선택과목의 경우 변시와 모의시험 간의 상관관계가 더 두드러



(왼쪽부터) 김재봉 원장(형사법 영역위원장), 권재열 원장(민사법 영역위원장), 김순석 이사장(총괄위원장), 이동원 원장(선택과목 영역위원장), 최희수 원장(공법 영역위원장)

지게 나타난다. 출제되는 범위가 다른 과목보다 좁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반복해서 출제되고, 모의시험이 중요도에 대한 빅피치가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몇 년 치의 모의고사와 변시를 분석해보면 거의 그 안에서 출제된다.

최희수 맞다. 모의시험 성적과 합격률은 대체로 비례한다. 3학년 초까지만 해도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이 있는데, 모의시험 성적이 쑥 오르더니 변시에서 합격했다. 모의시험 성적으로 변시 합격을 예측할 수도 있다.

김순석 각 학교에서는 모의시험의 효율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응시하기를 바라지만, 일부 학생들은 모의시험에 부담을 느끼거나 거추장스럽게 생각한다. 아마, 로

스쿨에서 3학년 학생들에게 총 3번의 모의시험(6월, 8월, 10월)을 강제적으로 보게끔 하는 정책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모의시험과 변시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만큼, 모의시험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모의시험도 더 긴 지문, 더 찾기 어려운 판례를 동원하는 등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최희수 모의시험의 난이도가 변시에 따라서 높아지는 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모의시험이 변시를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만, 변시를 대비할 수 있고 실질적인 부담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모의시험의 1차적인 기능은 '본 시험 대비'이므로 모의시험 출제진들도 변시의 수준에 필적하게 출제하려고 노력한다.

권재열 법무부가 작년에 처음으로 기출문제의 쟁점과 동일한 쟁점을 문제로 출제해도 된다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출문제에서 재출제하는 것을 꺼려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변시의 난이도도 평준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의시험 문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출제위원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권재열 이번 모의시험에서 출제위원님들께 가급적이면 변시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출제 담당하는 분들을 모실 때에도 되도록 변시 출제 경험이 있는 분을 절반 정도로 구성하고, 학교도 다양하게 고려해서 문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순석 다양한 교수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출제진을 섭외하는 것 외에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판사, 검사 등 경험이 풍부한 출제위원을 지원받아 출제진으로 위촉하고 있다. 영역별 회의, 사전 출제, 합숙 전 검토 회의, 합숙 출제, 최종 검토 회의 등을 통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변시의 개선점과 함께 이야기해 달라.

김재봉 변시와 모의시험 모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시험은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데, 변시의 경우 출제 위원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올해처럼 전반적으로 어려운 해가 있는 반면, 어느 해에는 특정 과목만 쉽게 출제되기도 한다. 변시는 법무부의 소관이므로 우리가 관리할 수 없으므로 개선점만 건의하되, 모의시험부터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희수 오히려 모의시험이 출제하는 중간 중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시보다는 일관성이 있지 않나?

김재봉 모의시험도 출제위원에 따라 시험의 난이도 등이 달라질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문제의 분량, 지문의 길이 등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질적인 부분에서도 요즘에는 너무 판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론 문제도 포함시키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두면 지금보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순석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출제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 출제는 출제위원이 하더라도, 문제를 검토하는 전문가 그룹이 살펴보고 난이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동원 시험을 출제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개인이 문제를 보고 가이드라인을 넘어섰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AI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활용했으면 한다. 이론이나 판례, 법률 등의 범위를 정확하게 매뉴얼로 정한 후에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영역별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기 위한 노하우를 알려준다면?

김재봉 지금의 추세라면 판례를 많이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본과목도 수강하지 않고, 판례 요지만 암기하는 식의 공부를 하는데, 계속 그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크게 오를 수 없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언하면 지금처럼 분량이 많고, 3년으로 공부시간이 제한된 경우 출제가능한 내용을 선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경향을 파악하고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권재열 로스쿨 제도의 가장 주된 취지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인데, 요즘엔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를 경시하고 오히려 학원 강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로스쿨 교수님들이 사법시험이나 그 이전 세대보다는 시대적 경향이라든가 판례, 동향, 법리에 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답안지와 관련해서는 채점에 용이한 답안지를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 시험의 경우 출제위원 교수님 한 분이 수십, 수백 명의 답안지를 채점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애매모호한 문장을 사용하고, 결론에서 쟁점을 검토하지 않거나 엉터리 판

례를 인용하는 답안지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최희수 변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려면, 변시와 모의시험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공부해야 한다. 당장 이번 모의고사와 올해의 변시가 상관성이 높지 않았더라도, 모의고사가 변형되어 변시에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므로 기존에 출제됐던 모의고사 문제들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변시에서 고득점 할 수 있는 비법 중 하나다.

이동원 경제법은 과락자가 적다는 평이 있고, 1회 모의시험 때나 1회 변시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실상 점수는 '쟁점별'로 부여되기 때문에, 쟁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에서 출제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출제자 또한 그 믿음을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순석 합격을 위해서는 정석대로 공부해야 한다. 판례 요지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부터 읽어야 한다. 그래야만 판례를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고, 사실관계 파악이 빨라진다. 변시 합격의 경계 선상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교과서를 보지 않고 판례와 수험서만 보는데, 기본 법리에 충실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를 수가 없다. 학생들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 단시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지만, 교과서를 읽으며 기본 법리에 충실하고 판례로부터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길 밖에 없다. 변시 합격에는 왕도가 없다.

최희수 요즘엔 선택형의 경우도 케이

스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요지만 봐서는 안 된다. 중요한 판례의 경우에는 판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지만으로는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재봉 기본법은 1~2학년 때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필수 과목이 아니면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형법을 예로 들면 총론과 각론 중에서 각론은 아예 듣지 않는 학생도 있지만,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이동원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응용을 할 수 없다. 몇 년 전 법전원 입학 면접시험을 볼 때 학생들에게 출자총액제한(出資總額制限)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물었더니 장단점은 매우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출총제의 기본 개념은 설명하지 못했다. 이처럼 기본 법리를 모르고 무조건 암기하면 응용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

김순석 맞다. 판례가 없는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해결하지 못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최희수 1~2학년 때 기본과목의 이론 공부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이동원 그만큼 이론이 중요한데, 수업시간에 이론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왜 이야기 하느냐'고 묻는 학생도 있어서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해 달라.

이동원 쟁점이 많은 민법 사례형의 경우 3시간 30분 안에 10~11개의 쟁점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기 보다는 쟁점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서술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문제에서 다루는 쟁점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희수 모의시험도 변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목별로 포맷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모의시험부터 포맷에 맞춰서 출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재봉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변시와 모의시험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는데, 이 두 시험이 바람직한 방향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인지는 다시 생각

해봐야 한다. 모의시험에서 우선적으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출제를 해 나간다면, 변시가 자동적으로 모의 시험에 맞춰져 향후에는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의시험부터 일정한 형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의 출제, 출제수준의 일관성 등이 선행되어야, 자격 시험화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 모의시험에 대한 포맷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모의시험을 출제할 때 500자 이상의 문제는 아예 입력이 되지 않는 식으로 일정한 포맷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맷을 법무부에 제안했을 때, 합리적이라면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권재열 변시든 모의시험이든 출제위원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본인이 강의를 해 봐야지만 가장 최신 판례를 이해하고, 동향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순석 인적구성의 문제는 법학석사 시험(LEET) 출제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리트를 출제할 때에는 감독위원과 출제위원이 구분된다. 감독위원은 경험이 풍부한 원로급 교수로 구성되고, 출제위원은 중간급 교수다. 모의시험도 리트처럼 출제위원을 구분해서 과목별로 영역위원 풀을 만들어놓으면 좋겠다. 또 난이도 조절을 위한 상설 검토위원회 구성도 생각해 볼만 하다.

최희수 문제를 출제할 때 준수해야 할 준칙과 문제를 출제하는 시스템 모두 필요

한 상황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준을 만드는 일이다.

김재봉 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기간에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내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려면 문제은행 방식이 적합하다.

권재열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문제 출제는 실질적으로 강의를 해 본 교수들이 하는 것이 맞다. 학교에서 강의를 해 본 교수들은 학생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이다.

김재봉 협의회에 모의고사 자료가 비축되어 있으니까 진도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기존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변형시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희수 문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어떤 형식이 되어야 하는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재봉 가능한 한 모범 문제를 만들어서 영역별로 제시하고 이 기준에 맞춰달라고 출제 교수님들께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김순석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객관식 문항 수, 글자 수, 이론문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지 포맷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김재봉 기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제 문제와 채점기준의 샘플이 필요하다. 출제 교수들이 샘플을 보면 '아, 이 정도면 되는구나.' 바로 알 수 있게끔 여러 유형의 샘플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모의시험 개선을 위해 협의회에 TF를 구성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동원 법무부에서도 변시 출제위원을 선정할 때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의 경우 강의 경력, 출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실무자들도 관련 강의나 소송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등 출제위원 자격 조건을 검증된 사람으로 해야 한다.

김순석 변시 출제는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연수원 교수, 그리고 로스쿨 교수의 경우 일정한 기간 이상 강의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괄위원장 김순석 이사장

- 소속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공 : 상법
- 경력 :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위원



공법 영역위원장 최희수 원장

- 소속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공 : 헌법
- 경력 :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 강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형사법 영역위원장 김재봉 원장

- 소속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공 : 형사법
- 경력 : (현)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 (현)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전)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민사법 영역위원장 권재열 원장

- 소속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공 : 상법
- 경력 :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선택과목 영역위원장 이동원 원장

- 소속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공 : 경제법(사회법)
- 경력 :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

issue 01

고려대학교 로스쿨팀,
제6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우승

지난 2월 7일(금)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6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고려대학교 로스쿨팀(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대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49개팀이 출전하였으며, 그 중 8개팀이 본선에 올랐다. 고려대학교 로스쿨팀에 이어 서울대학교 로스쿨팀(오마이게릴라)이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대 로스쿨 '오죽헌'팀과 중앙대 로스쿨 '존엄과 가치와 행복'팀이 은상을 받았다. 뛰어난 변론을 펼친 개인에게 주어지는 우수변론상은 우승팀의 오용훈 학생이 수상했다.



issue 02

태평양·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이화여대 로스쿨팀 최우수상 수상

2월 7일(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제9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최종심사가 진행됐다. 최종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서강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육시설 보호종료 후 아동들을 위한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한 이화여대 로스쿨 '자, 함께'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동천은 수상팀에게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제안한 프로그램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issue 03

법제처장, 로스쿨 재학 예비 법조인들과 간담회 가져

법제처는 지난 2월 1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3개 로스쿨 재학생 13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해 소감을 듣고 수습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법제처는 지난 2010년부터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령심사·해석, 법령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하는 실무수습을 진행해왔다.



issue 04

법전원원우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법교육정상화시민연대 총결기대회

법전원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2월 18일(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정부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법전원원우협의회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법교육정상화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는 법조 시장 상황을 운운하며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를 통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로스쿨은 수험만을 위한 고시학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목숨을 잃은 법전원 학생을 추모하는 시간을 비롯해, 자유 발언, 구호 제창 등을 하였으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취지가 담긴 서한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로스쿨,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개강 일정 연기

전국 25개교 로스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강 일정을 연기했다. 코로나19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법전원협의회는 지난 2월 25일(화) 총회를 개최하여 개강 일정 연기를 논의했고, 모든 로스쿨이 당초보다 2주 연기한 3월 16일(월)에 개강하기로 했다. 특히 1학기 일정이 약 2주간 늦춰짐에 따라 변호사시험 모의시험(6월, 8월분)도 1주일씩 연기해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로스쿨 원장단은 개강 일정 연기에 따른 학사 일정 차질이 없도록 보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로스쿨 졸업 후 해군 법무관과 군검사로 활약하면서 법조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온 배연관 변호사는 지난해 법무법인 YK에 동지를 틀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새출발을 시작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같은 사건들에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며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마지막 성채이자 보루라고 생각해요.”

배연관 변호사
법무법인 YK

2019년부터 법무법인 YK에서 변호사로서 새롭게 출발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

주로 하는 업무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 특수사건과, 경제범죄를 비롯한 특수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군형사사건, 공무원 징계나 보훈과 관련된 행정사건, 무기나 전투체계 및 선박과 관련된 방위산업사건, 해양사건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경험과 청해부대 24진 법무참모 경험을 살려 심도 있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소송 진행과정과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형사사건은 민사소송처럼 법정에서 소송을 통해 시작

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면서부터 형사 사건이 시작되는 바,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이에 동석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라 생각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이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의 개시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의 수사과 검찰의 수사를 거친 다음에 검찰이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바, 가능한 한 기소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기소될 수밖에 없는 사건의 경우도 가능한 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법무법인 YK에서 수행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아무래도 억울한 혐의를 해소함으로써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사건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 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수행했던 사건인 강간미수 성범죄 혐의를 벗은 사건이 기억에 납니다. 의뢰인이 성범죄 혐의를 벗고 나서 “제가 만약에 배연관 변호사님을 선임 안하고 혼자 이대로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는 날 말씀 해주시면 찾아뵙고 술 한잔 하고 싶습니다.”라는 감사 문자를 받았을 때,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수행하였던 사건의 기억은 평생 간다고들 하던데, 죽어서도 못 잊을 것 같습니다(웃음).

로스쿨 졸업 후 해군 법무관·군검사로 활동하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로도 활약했는데, 군검사로서의 경험이 변호사 업무에 도움이 되었나?

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에서 수사를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오해를 하는데 군검찰이나 군사법 경찰(헌병)같은 군 수사기관이 정말 수사를 잘합니다. 작

은 혐의점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철저히 캐묻고, 디지털포렌식, 통신추적, 계좌추적, CCTV 분석 등 모든 물적/과학적 증거를 세심히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하는데, 저 또한 그 당시에 배운 것들을 통해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유심히 확인하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혐의점을 해소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그 반대에서서서 '지금쯤 수사기관은 이런 부분을 의심할 테니 이런 의문점을 해소해 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그 가족이라도 어느 순간에는 의뢰인을 믿지 못하게 될 때가 있고,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라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숨고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법무참모로서 청해부대에 자원했다고 들었다. 당시의 일화를 소개해준다면?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국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많았지만, 이미 공개된 일화 중 하나를 소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2017년 9월이었던 것 같은데, 청해부대 24진이 아덴만에서 표류하던 선박을 구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구호식량을 전달하고, 예멘 근처에서 표류 중인 선박을 예인하였는데, 의료 지원을 통해 환자 상태를 진찰하던 중 의무참모님께서 “폐렴에 걸려 있는 어린 환자가 있는데, 예멘으로 가봤자 치료비가 없어 치료받기가 어렵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때 전대장, UDT 대장, 의무참모, 통역관 등이 주도하여 ‘아이 치료비를 좀 모아주자’라고 하여 장교와 부사관들이 순식간에 수백 달러를 모금하여 전달하였고, 그것을 받은 아이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감사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폐렴에서 회복하여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랍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꾸준히 법률봉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부터 범경찰 교수님이 주도하신 ‘법과 사람사이’라는 리걸 클리닉을 통해 도 서지역을 비롯한 무변촌에서 법률봉사를 해 오면서 도움이

나 봉사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법무법인 YK에서는 ‘옴’이라는 공익법인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바, 향후 이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계획입니다. 저는 주로 군과 관련된 분야에서 조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지막 방패’라고 이야기 했다. 어떤 의미인가?

로스쿨 재학 중에 한 인터뷰니까 벌써 6년 전이네요(웃음). 그때 ‘큰 힘을 가진 사람은 큰 책임이 따른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지막 방패다’라는 요지의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뢰인이 어떤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그 가족이라도 어느 순간에는 의뢰인을 믿지 못하게 될 때가 있고,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라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숨고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생각은 조금 더 발전하였습니다. 변호사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의 마지막 방패에서 더 나아가 의뢰인의 마지막 성채이자 보루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변호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참 특이하다면 특이한 가치일 수 있는데, 의뢰인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과 마음을 터놓

고 사실관계와 상황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능력이 있어야, 의뢰인도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되고, 변호인도 그 과정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부당한 의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법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최고도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자기 개발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 달라.

일이 잘 해결되었을 때 스트레스가 삼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인터뷰 직전에 저희 의뢰인 중 한명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이 감사하다는 전화를 주었는데 오늘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일로써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기도 하네요(웃음).

변호사는 스페셜리스트이지만,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하기에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결국 자기개발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청해부대에서 배워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제일 바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바보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청해부대 의무참모님께서 배를 타고 있던 중에 제게 “법무참모는 여기서 누가 제일 바보일거 같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 때 “바보는 모르지만 의무참모님께서 제일 똑똑할 것 같다”고 응수했는데, 의무참모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아니다, 법무참모랑 내가 제일 바보다. 우리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각자 의학이랑 법학만 공부한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기에, 세상의 수많은 지식을 외면하고 산지도 꽤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제일 바보고 우리가 제일 많이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청해부대에 있는 동안, 배를 돌아다니며 다른 장교와 부사관들로부터 작전, 항해, 레이더, 소나, 통신, 정보분석, 기상, 기관운용, 갑판사무, 보급, 수사, 무기운용, 조리 등등 제가 평생 모르고 살던 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갔고 그때 배운 지식들은 지금도 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세를 잃지 않고, 법이 아니더라도 제가 모르는 분야의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배우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법조인으로서의 향후 계획은?

가까이는 맡게 되는 사건들에 최선을 다하며 의뢰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멀리는 군사사건, 군수 방위산업 혹은 국제해양안보 관련된 분야의 전문 지식을 더 쌓아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수록 바다와 관련된 분야에서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때 우리 해군과 선사, 해양 관련 분야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형사법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로스쿨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많은 분들이 수험서를 통해 형사법을 공부하실 텐데, 수십 년간 연구하고 공부하신 교수님들의 교과서나 연구서에 적혀있는 한 줄의 견해나 평석이 후에 여러분의 의뢰인을 살릴 수 있는 동아줄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로스쿨 재학 중에 가능한 한 교수님의 교과서를 여러 번 정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연관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해군 법무관 임관해군 군검사(군검찰관) 임명
 해군 제3함대 법무실 인권 및 작전법 담당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24진) 법무참모
 해병대사령부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임명
 국방부검찰단 특수수사 1과 군검사
 2019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로스쿨에 입학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편지



‘고생했으니 이제 쉬어라. 모두가 (마음껏) 너를 비웃도록’

남기엽 변호사

“Timing beats speed, Precision beats power”
“타이밍은 스피드를 압도하고 정확도는 힘을 제압한다”

전 UFC 챔피언 코너 맥그리거가 첫 페더급 타이틀전에서 당시 챔피언이던 ‘폭군’ 조제알도를 이기고 한 말이다.

아름다운 말이다. 스피드와 힘은 타고나는 것인데 알도 같이 스피드와 힘 없이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러나 저 말은 맥그리거에게만 쉬운 말이다. 맥그리거처럼 페더급 전체에서 가장 긴 리치를 갖고 있고 전형적인 카운터형 복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저 말은 팔이 짧은 파이터에겐 해당사항이 없다.

난 살면서 많은 것을 시도했다. 보잘 것 없지만 대학 시절,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 인정하기 싫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많았다. 그런 건 감춰다. 드러내보야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몇이나 될 것 같은가. 대부분은 동정, 안쓰러움이다. 1등이 10000등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10000등이 뭐 어때. 다 잘 될 거야”는 솔직히 말해 기만이다. 저런 위로는 날 더 괴롭게 했다.

아픔을 드러내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다. 아파요. 같이 물어주세요. 원하는 대학(직장)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수능(LEET)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어른들은 위로

의 말을 건넨다. 한 번 더 일어서면 된단다. 아무도 너를 비웃지 않을 거란다. 그 누구도 지금의 결과로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란다. 간판 따위 아무것도 아니란다.

내가 10여년 전 수능을 망치고 생각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숨을 쉴 때, 내게 위로를 건넸던 많은 책에 나온 문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은 죄다 고학력, 고스펙으로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었다. 청춘은 아파도 된다던 그 분은 서울대 교수였고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면 승려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미국인이었다.

물론 유명 자기계발서 작가 중 특별한 이력 없이 성공한 이들도 있었다. 그것들을 탐독하며 한 가지는 확인했다. 그 자기계발서로 성공한 사람은 그걸 쓴 자기자신이었다. “확실히 성공하는 공부법”을 쓴 저자는 확실히 책은 잘 팔았다.

아픈 게 씻겨버리고 싶은 쓰레기 같은 기억으로 남을지 청춘으로 추억될 수 있는지는 현재의 자기 처지에 달려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활약하며 바쁘게 살던 이에게 휴식은 꽤 많은 것을 주지만 원래 멈춰있던 자가 또 멈춰보야 무엇이 보이겠는가.

로스쿨에 들어와 길 없는 길을 걷다 독일에 교환학생으로 갔다. 역시나 되는 일이 없었다. 익숙지 않은 외국어로



의사표현하기도 바쁘게 현지인끼리의 낯선 디베이트에 외국인인 내가 쉽게 끼어들기 어려웠고 학부시절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내가 교수의 질문을 받을까 떨었다. 누군가의 농담으로 다같이 웃을 때 따라 웃을지 고민하던 순간순간들이 징그러웠다. 그러다 정말 우연히도 시인 나르테스크의 구절을 봤다. “고생했으니 이제 쉬어라. 모두가 너를 비웃을 것이다.” 이 말은 나의 많은 걸 바꿨다.

저마다 힘든 사정이 있는 이들에게 많은 위로가, 또 그보다 많은 질타와 동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자. 고생했으니 주저앉아도 된다(세련된 문체로 쉬어도 된다)는 말은 모두가 너를 비웃을 수도 있다는 말이 생략됐다.

누구나 은밀하게 남의 불행을 즐기고 시끄럽게 남의 상처를 위로한다. 그러니, 후배여러분은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 파리 루브르에 갔을 때, 나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보며 ‘드래곤볼 표지’ 이상의 느낌을 못 받았다. 그렇다고 나의 예술적 감수성이 문제된 적은 없다.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때론 지쳐 쓰러질 테고 그 땀 쉬어도 된다. 귀찮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탓해도 된다. 그것 때문이니. 다만, 모두가 너를 비웃을 것이다. 그게 싫으면 무얼해야 할지는 제일 아는 것 역시 바로 당신이 다. 나라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열심히 하세요~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비추어지고 싶지 않겠느냐만, 그 비용을 감수하고 쓰는 것이다. 꿈을 스스로를 ‘나이트’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남기엽 변호사

대법원 국선번호인
시사저널 칼럼니스트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공보위원

보이스피싱의 덫



송혜미 변호사

“누나,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 진짜일까?” 아침에 동생이 연락이 왔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비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동생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았는데, 검사실을 물어보면 확인하겠다고 전달했더니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하여야 한다며 공문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해당 공문을 보니 아무리 보아도 검찰총장의 도장까지 찍힌 공문은 검찰이 발신인이 아닌 거 같았다.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이도 진화했다. 전화 통화만으로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 측의 신규계좌 개설 엄격화로 인하여 통장이나 카드를 구하기 어려워 없어지거나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요즘의 경우, 대포통장 알바 등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그 대신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혹은 “대출을 받아 줄 테니 본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 등의 거짓 감언이설로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통장, 카드를 취득한다. 이 과정에서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등의 본인의 참여를 지시하여 통장의 명의자가 공범인 것으로 고소가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보이스피싱은 형사법 내에서 사기에 해당한다. 피해자

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통장의 명의자들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장 명의자들 역시 범죄의 몸통인 주범들에게 속아서 통장이나 카드를 건넸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통장이나 카드의 명의자들에게 있다. 이 경우 통장의 명의자들은 사기 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최근 진화한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제법 다양해졌다. 그 중에서도 많은 유형은 대출을 이용한 방법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1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금융기관 어느 곳에서 승인이 날지 모르니, 5군데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원했던 500만원으로 5군데의 대출신청서와 신분증을 받아서 총 25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2500만원에 대하여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필요한 급전인 500만원만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해주고, 2000만원에 대한 대출은 취소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조직원은 총 금액인 2500만원을 모두 송금하여야만 2000만원의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조직원의 설명대로 2000만원은 취소되고 500만원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돈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게는 대출 2500만원을 고금리로 갚아야 하게 되었고, 2500만원은 조직원에게 송금된 뒤 조직원은 피해자와 연락두절이 되었다. 이러한 피해금액은 피해자가 1명이 아니기에 수 억원에 이르게 된다.

피해자는 뒤늦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지만,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에 대해서는 그 신원을 알 길이 없었다.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은 피해자가 연락한 적도 없는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들이다. 이중에 일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통장이나 카드조차 조직원들인 가해자들에게 넘겨준 사실이 없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된다. 피해자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위 통장 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모두 보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넘긴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넘기는 행위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 2015. 1. 15선고 2012다84707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한 점,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가 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

나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피고가 자기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에 발표한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재산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무력감이나 자신감 상실 등 우울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사기 피해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들은 21.5%에 불과하고 피해금을 회수했다는 이들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았다. 더구나 전부 회수했다는 경우는 1.62%에 그쳤다.

이처럼 심각한 범죄인 보이스피싱이 더욱 다양하고,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정말 처벌받아야 하는 주범들은 처벌받지 않고 교묘히 빠져나가며, 속임수에 당한 사람만 더욱 힘들어지는 현 사태가 너무도 안타깝다.

송혜미 변호사

- 현) 법률사무소 오피스 대표변호사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
- 현) 한국상담서비스네트워크 자문위원
- 현) 서울시교육청 사학재단 자문위원
- 전) 롯데네슬레코리아사내변호사
- 전) 국회사무처 정책비서

해외 실무수습을 다녀와서 - 법무법인 덕형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박진현

1. 들어가며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여름방학 기간 중 학교에서 진행하는 해외법무수습 과정을 통해 「법무법인 덕형」을 방문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비록 2주(8월12일~23일) 남짓 되는 기간이 중국의 사법제도와 로펌의 활동에 대하여 체험해보기에 짧은 시간이긴 하였지만, 실제 외국의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직접 지켜볼 수 있었고 또 장래 법조인이 되어 활동함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그 시야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 지원 과정

로스쿨을 졸업한 지인으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시 다양한 해외실무수습 프로그램이 존재하니 이를 잘 활용해보라는 조언을 듣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입학 후 실무수습 공고를 확인하던 중 중국의 법무법인인 덕형에 지원하게 되었다. 덕형 외에도 다양한 국가와 기관들이 실무수습 목록에 존재하였지만, 제2외국어로 일본어와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어 예전부터 한 번쯤 해당 국가에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우리와 다양하게 교류하고 있는 나라들이지만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아 상대적으로 더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본에 비하여 중국의 법제도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이에 대한 호기심도 있어서 중국의 법무법인을 선택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우리와는 다소 다른 정치·경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법체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로스쿨 진학 전 대학원에서 중국인 유학생 분들의 민사에 관한 발표문을 몇 편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가졌던 우리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법제도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피상적으로나마 배워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모집 공고에 중국에서도 규모가 대단히 큰 로펌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서 소속 변호사들이 실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욕심 또한 한 가지 이유가 되기도 했다.

면접 과정에서 개인 뿐 아니라 학교 나아가 우리나라의 예비 법률가로서 인상과도 연결이 되는 만큼 실무수습을 담당하시는 중국의 변호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덕형으로 출발하였다.

3. 법무법인 덕형

(1) 소개

실무수습을 갔던 「법무법인 덕형(德衡)」은 중국 산둥성(山東省) 청도(靑島)시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의 많은 대형로펌들이 북경이나 상해와 같은 주요 대도시에서 출발하였음에 비하여 덕형의 경우 청도시에서 시작하였다.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청도시에도 잘 알려진 칭다오 맥주를 비롯하여 하이신이나 하이얼 같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 있고 해안을 따라 위치하다보니 조선업도 발달하여 법무법인이 그 역할을 할 여건이 충분하다고 한다. 북경으로 진출 시 한자는 달리 사용하지만 발음이 같은 이름의 로펌이 이미 존재하여 덕화형(德和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덕형법률그룹(Deheng Law Group)이라는 브랜드 아래 중국 각지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재 중국의 각 성에 하나 이상의 사무소를 운영 중이고 특히 산둥성에는 일부 중소도시까지도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미국 등 해외에도 진출하여 총 50여 개가 넘는 사무소에 변호사 수만 1200여명이상이 활동하고 있어서 법률전문지인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에서 아시아 10대 로펌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2) 소속 변호사들의 근무 모습

청도시의 법무법인 덕형에는 80여 명의 변호사들이 일하고 있다. 회사, 금융, 부동산, 지식재산, 국제 등 다양한 업무파트가 존재하여 구성원들은 각각의 파트에서 활동하는데, 원하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부서를 옮겨서 다양한



업무를 다루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실무수습을 담당하시던 변호사님의 경우 하나의 파트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의미가 있고 현재의 업무도 만족스럽기는 하지만 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를 다루어보고 싶기도 하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 덕형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업무분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한다.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파트의 대표변호사님이 번갈아가며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시는데 업무분야에 상관없이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참가하여 식사를 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표를 듣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도 하고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받기도 하는 자리였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오후 한나절 정도를 할애하여 연차가 낮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하는 시간이 있기도 했다. 법률전문가라 할 수 있는 변호사들에게도 자신의 업무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 있게 보였는데 특히 이러한 자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처럼 딱딱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질문하고 이야기 나눔으로써 참가자들의 관심도를 높이면서도 효율을 달성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기억에 남았다.

업무 외적인 부분으로는 점심시간에 부분 소등을 하여 식사 후 원하는 사람의 경우 잠시 수면을 취하며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과 분위기를 제공하고, 오후 일과 중간에 5~10분 정도 음악이 나오면서 전 구성원이 다함께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 흥미로웠다. 어찌 보면 다소 획일화된 활동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참여가 강제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구성원들의 건강과 활동효율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담당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중국에서의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위상이 한국에 비해 다소 낮은 것 같다고 하셨지만 이러한 업무환경 때문인지 실무수습 과정에서 본 소속 변호사분들이 다들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모습인 것 같아 인상적이었다.

4. 실무수습 활동

덕형에서 실무수습을 담당하신 변호사님들은 해외파트의 한국담당 팀에서 일하시는 분들로 대표변호사님과 그 아래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변호사 두 분이셨다. 중국 동포 출신이셔서 중국어 외에 한국어도 능통하셔서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전혀 없이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교육은 실무담당 변호사님들이 번갈아가며 해주셨다.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주요 법률과 법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변호사님들께서 업무와 관련이 있기도 했지만 우리 법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한국법의 경우는 어떠한지 질문을 자주 해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법제도와 중국 법제도를 비교해보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단순히 교과서를 통해 내용을 익히는 것과는 또 다르게 제도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이 우리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식이 부족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점이 안타까워서 돌아가면 수업을 통하여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교육과정을 통하여 중국의 기본적인 법체계와 사법체계, 물권법, 형법, 외상투자법, 민·형사 소송과정, 해사법원과 같은 전문

법원, 중국 내 기업의 정보공개 등 다양한 내용을 배웠다.

또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을 물어보시고 이에 대하여 설명해주셔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대략적인 절차나 중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 등을 질문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수업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혼외동거 유증에 관한 중국판례의 분석에 대해 다르게 해석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의문스러웠던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어볼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법무법인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어서 변호사님께 실제 담당하신 케이스 소개를 부탁드렸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기업 간 고리전대가 금지된 중국에서 은행에서 대출한 금전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빌려준 경우 그 계약의 유효성과 물건이 권리증권의 형태로 교부되어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문제가 된 복잡한 사안이었는데 쟁점에 대한 법원의 법적 판단에 대해서 1심-2심-재심으로 이어지는 사법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 실무에서 변호사들의 변론 등 업무처리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5. 감상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리적인 인접성이나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기도 하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류에는 필연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이 문제될 수 있기에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입장에서 장래 일을 할 때 중국과 관련한 법률지식이 있으면 좀 더 전문적인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번 실무수습을 통하여 하게 되었다. 외상투자법에 대한 교육과정 중에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공산국, 세무국, 외환관리국, 해관 등의 기관에서 각각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부서가 통합되는 등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외상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입장에서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해당 국가의 역사적·문화적 필요에 의하여 발달해오는 것인 만큼 그러한 절차가 당사국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설명 그것이 우리의 시각에서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짓고 물건을 판매하려면 해당 국가의 제도에 맞추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된다. 실제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문외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비단 중국의 경우 국한하지 않더라도 외국의 법제도나 체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실무상 활동할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생활적인 면에서도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배우는 바가 있었다. 실무수습을 담당하신 변호사 중 한 분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어서 로펌에서 활동한 경력이 오래 되셨음에도 안주하지 않고 개인의 실력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계셨다. 평일에 다양한 업무에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주말에는 쉬고 싶으실 만도 할 것 같은데 세무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틈틈이 세무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며 변호사로서 업무처리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능하면 일년에 하나 정도의 분야를 목표로 정하여 해당 분야의 지식을 공부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좋은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는 물론이고 차차 법조인이 되어서도 실력을 키우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었는데, 이번 수습기간을 통하여 실무적인 부분 외에도 본받을 만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 것 같다.

6. 마치며

이번 해외실무수습 기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볼 수 있었고 또 단순하게는 외국에 나가서 색다른 환경을 접해보는 자체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각 학교가 협약을 체결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실무수습 외에도 법무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연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 분들 혹은 재학생 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와 같은 소중한 경험을 해보길 추천한다.

제11회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현장 속으로!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실제와 닮은 사건을 가지고 원·피고 대리인 또는 검사, 변호인으로서 재판과 동일한 변론 경연을 펼치는 대회이다. 11회를 맞이한 올해 대회에도 어김없이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해 대회의 권위와 명성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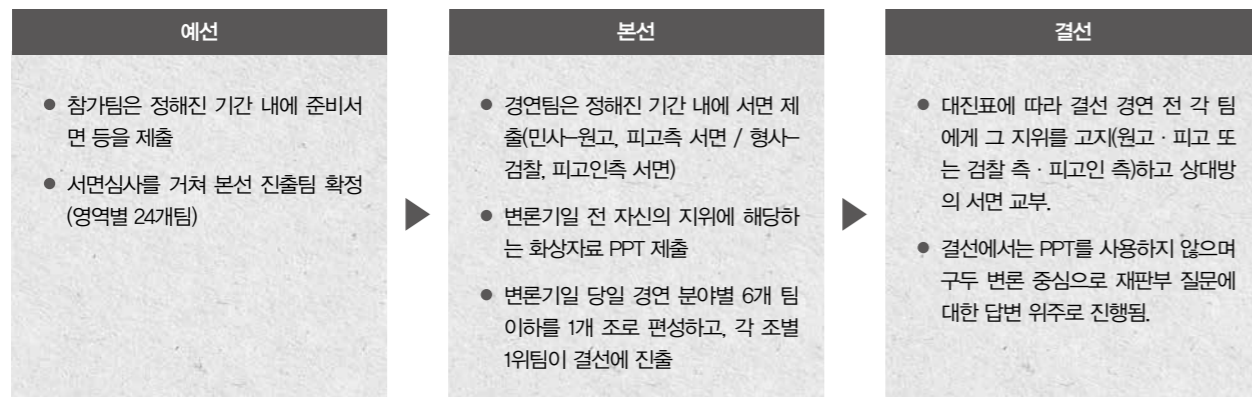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수상팀에게 트로피를 건네고 있다.

내빈들이 경연대회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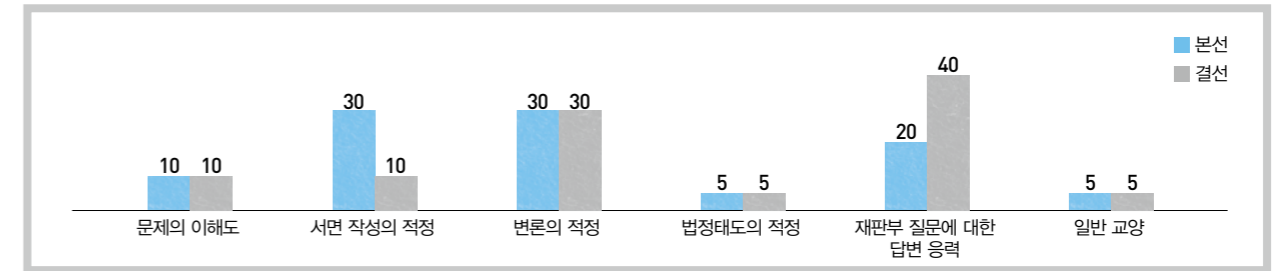
제11회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예선에는 120개팀(민사 70개팀, 형사 50개팀), 총 360명의 학생이 참가해 열린 경연을 펼쳤다. 본선에는 민사와 형사 각 24개팀이 진출했으며, 이 중 6개팀이 결선에 올랐다. 지난 대회까지만 해도 36개팀이 본선에 올랐지만, 운영측은 이번 대회부터 본선 진출팀의 수를 24개로 줄여 더욱 내실 있는 경연과 충실한 심사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 대회 흐름도



이번 경연대회 민사부문 결선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존속 중) 임대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 등의 문제가 주어졌으며, 형사부문 결선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서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의 의의와 그 요건' 등이 출제됐다.

■ 평가요소 배점 비율



※ 평가항목에 '절차 준수'의 적정' 요소도 있지만, '감정제'로 운영됨.

대회의 심사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고등법원 배석판사 및 지방법원 단독·배석판사가 배석판사 역할을 맡아 참가팀의 순위를 결정했다. 참가한 학생들은 단순한 암기를 통해 변론을 하기 보다는, 로스쿨에서 배운 지식과 법리를 적극 활용해 변론하는 등 기성 법조인과 비교했을 때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변론 실력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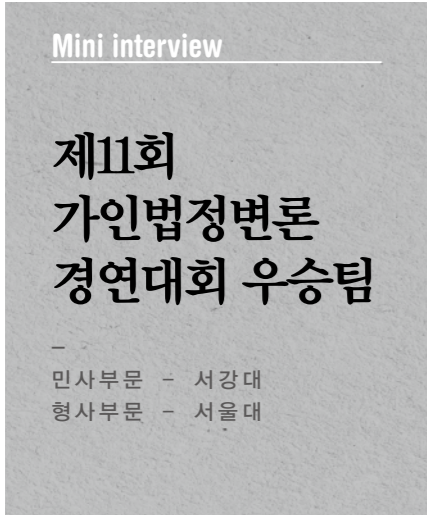
검찰 측을 맡은 학생들이 변론을 펼치고 있다.

결선에 오른 학생들이 재판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제11회 경연대회 결과

순위	상의 명칭	수상팀(명단)
1	가인상	민사-서강대(김웅규, 송웅지, 유혜린) / 형사-서울대(박재윤, 김성진, 임현서)
2	대한변호사협회장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	민사-아주대(이수인, 안소윤, 신현민) / 형사-서울대(전수연, 이계민, 임서영)
3	법률신문사장상	민사-충남대(홍다경, 김은기, 백일섭) / 형사-서강대(오현준, 정재호, 박영상)
4	자유상	민사-고려대(김기현, 권혜수, 오규림) / 형사-충남대(서호석, 김도희, 김성현)
5	평등상	민사-고려대(이소연, 이한빈, 정상진) / 형사-고려대(김기현, 김소연, 장지현)
6	정의상	민사-전북대(이현우, 김희정, 백윤지) / 형사-부산대(정현혁, 송민예, 류미래)

※ 개인최우수상: 민사-서강대 송웅지 / 형사-충남대 김도희 ※ 단체상: 서울대(자유상), 서강대(평등상), 아주대(정의상)
 ※ 민·형사부문 각 결선진출자 36명에게는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추천권이 주어지며, 재판연구원 선발 시 서류전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수상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민사팀 사실 아직까지도 수상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내내 결과에 상관없이,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형사팀 기대치도 않게 정말 큰 상을 타게 되어 정말 기쁘지만, 이렇게 수상할 만큼의 실력이 아닌데 과분한 상을 주신 것 같아 다소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대회 준비하며 열심히 노력한 것만 해도 소중한 기회였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팀원 소개와 함께 대회에 참가하게 된 배경을 소개해 주세요.

민사팀 저희 팀은 11기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할 때부터 서로 마음이 잘 통해 가깝게 지내왔고, 1학년 여름방학 중에 한 팀이 되어 가인법정변론 경

연대회에 나가보자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이 각각 서로 다른 학부 전공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서로가 가진 성격적인 특성이 달라서 함께한다면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사팀 김성진 팀원과 임현서 팀원은 원래 로스쿨 7기와 8기인데 휴학으로 인해 10기와 같이 다니게 되었고, 박재운 팀장이 평소 나이 많은 복학생들을 잘 챙겨줘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면 변호사시험 준비에 매진하게 되어 다른 경험을 하기 어려운데 3학년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좋은 경험을 하고자 의기투합하여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민사팀 무엇보다 일정에 맞춰서 대회준비를 마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다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기말고사가 상대적으로 늦게 끝났기 때문에, 예선과 본선을 준비하는데 각각 1주일, 3일 정도의 시간 밖에 없었습니다. 시험 직후에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형사팀 아무래도 이런 대회가 처음이다보니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팀들도 저희 팀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변론을 준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임하였습니다.

서면심사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민사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사이사이에 숨은 쟁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여러 번, 꼼꼼하게 정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각각의 쟁점에 대한 주장이나 항변이 배열되는 순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의 경우 주장의 배열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특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면의 전체적인 논리구조도 여러 번 바뀌보는 등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는 구조로 주장과 항변을 배열하는데 예선준비의 많은 부분을 투자했습니다.

형사팀 꼼꼼하게 다양한 관점을 검토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팀원끼리 앉아 많이 대화를 하며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문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였고, 서로 엇갈리는 의견을 조율해 가장 적합성 있다고 생각하는 결론들 위주로 서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팀원끼리 파트를 나누어 각자 책임대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결국 완성도 높은 서면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화를 많이 나누며 진행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결선을 준비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민사팀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가 끝난 후 3일 만에 본선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준비서면 작성에 있어서는 리서치 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담아내는데 집중했고 본선 및 결선 변론을 통해서 이를 보충하고자 했습니다. 변론에 있어서는 ① 변론의 주된 내용을 숙지하여 가급적이면 재판부를 바라보고 변론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② 원고와 피고 각각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여 상대방이 본선과 결선 대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응하는, 유의미한 반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본선 및 결선 준비 과정에서 팀원들이 각각 번갈아가면서 원고, 피고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해보는 작업을 거쳤는데, 이를 통해서 원피고 각각의 논리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형사팀 제한된 시간 내에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다양한 논거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감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변론, 재변론, 정리변론이 각기 다른 색을 띄도록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주변론에서는 서면의 핵심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재변론에서는 상대팀 서면의 모순 등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정리변론에서는 내용의 감성적 전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팀을 우승으로 이끈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민사팀 사실 잘한 점보다는 부족한 점이 훨씬 더 많기에 수상의 요인을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팀워크'에 강점이 있지 않



민사부문 우승팀(서강대)

형사부문 우승팀(서울대)

았나 싶습니다. 대회를 떠나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팀원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이야기 할 수 있었고, 그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저희만의 논리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팀 재판부의 질의를 예상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대략 60개 정도 준비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의응답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서면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여 보충할 수 있었고, 국내 판례와 학설은 물론 해외사례까지 조사하여 내용을 숙지했기에 실제 재판부 질의에 있어서도 당황하지 않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결선에 올라가면 1시간 내에 상대팀 서면을 읽고 이에 대한 재변론을 준비해야하는데 상대팀 주장이나 공격도 예상했던 재판부 질의와 유사하여 준비한 질의응답을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재변론을 준비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제12회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로스쿨 학우들에게 한마디해주세요.

민사팀 지난 1년간의 로스쿨 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의미 있고, 또 소중한 순간들을 꼽자면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준비하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쁜 로스쿨 생활 속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고되고 부담스러울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을 활용해보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나아가 함께한 팀원들과도 좋은 추억을 쌓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거두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형사팀 팀원의 호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도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 자신있게 반박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서면과 변론을 보여줄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자의 의견에 대하여 서로 반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서면과 변론에 담을 수 있다면 예상되는 질문이나 상대의 주장에 대하여 당황하지 않고 답변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대회 준비과정에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경연대회이니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어”

지난 2018년 김도희 앵커는 몸담고 있던 방송국을 떠나 법조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는 좌절하기보다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신념이라고 밝힌 김도희 학생은 오늘도 그저 담담하게 걷고 있을 뿐이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김도희 학생

학부시절 전공과 졸업 후 사회활동에 대해서 소개 부탁한다.

대학에서는 수학교육학과 신문방송학을 복수 전공했다. 강릉 MBC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원래의 꿈이었던 라디오 DJ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2009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울 MBC 라디오리포터, 광명시청 앵커, MBN 시황캐스터 등을 거쳐 2012년부터는 TJB(대전SBS) 앵커로 일하다 2018년 1월에 퇴사하는 등 언론 분야에서 10년간 활동했다.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입사동기인 앵커 B가 2016년에 퇴사했는데 어느 날, 퇴직금 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음에도 명색이 지상파 방송국이란 곳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까지 간다는 사실이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회사는 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모조리 없애려 했다. 유급휴가를 없애고 전속계약서를 용역계약서로 바꾼 뒤 서명을 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싸인을 거부하며 반발한 사람이 나 뿐이었는데, 보복성 조치들이 이어졌다. 결정적이었던 견허락을 맡고 다녀온 경조사 휴가가 무단결근 처리된 일이다. 앵커들은 회사 직원들의 경조사에 매번 일정을 지출해왔는데, 나에겐 부의금은커녕 무단결근으로 이틀치 임금을 미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때, 참 서럽게 울었

던 기억이 난다. 회사로부터 부당한 일들을 겪으면서 앞으로 닥쳐올 소송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로스쿨 진학으로까지 이어졌다.

현재 소송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인가?

TJB는 총 3명의 앵커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했다. 입사동기 B는 2심에서 조정으로 소송을 종료하였고, 2017년에 퇴사한 C는 합의금을 받고 소를 취하하였는데, 두 앵커 모두 출산과 육아가 겹치면서 중도 포기하게 된 것이다. 나의 소송은 2018년 12월에 시작되어 2019년 11월 변론이 종결되었고 올해 1월 선고가 한차례 미뤄진 뒤 화해 권고결정문이 나왔다. 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사측이 지급하되, 내가 근로자임을 포기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나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한 상태이다.

포기하지 않고 힘든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도 궁금하다.

회사는 B 앵커에게는 퇴직금의 70%, C 앵커에게는 100%에 상당하는 돈을 조정 또는 합의를 통해 지급하고도 해당 금액이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그 회사를 위해 일해 온 노동의 가치를 꼭 인정받고 싶다. 임금체불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특히 ‘언론사’가 언론노동자에게 이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회사가 원하면 휴일도 없이 주7일 근무를 하기도 했고, 회사는 내가 메인 8뉴스 앵커였던 3년 6개월간 설이나 추석을 비롯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한 것을 높이 평가하여 공로패를 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회사는 그렇게 일한 앵커들을 무능하다거나 악질적인 노동자로 몰아갔다.

나는 소송 외에도 이러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국정감사에 참인으로 출석하여 발언하였고 국민청원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TJB가 그동안의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뒤늦게라도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

2018년 1월에 퇴사하자마자 로스쿨에 입학했다. 짧은 기간 동안 집약적으로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공유해준다면?

2017년 초부터 로스쿨 입학을 위한 준비를 했다. 회사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기에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 잠도 평소보다 줄이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살았다. 기출문제 오답노트를 만들었고 하반기에는 면접 대비를 위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자고 1박 2일, 학원 수업과 스터디 2개를 병행하였다. 물론증도 찾아오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회사가 너무 싫어지니까 울면서도 공부를 하게 됐다. 특별한 노하우가 있기보다는 그런 절실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TJB 8시뉴스 메인 앵커일 당시의 김도희 앵커



TJB에서 김도희 앵커의 공로를 인정해서 수여한 공로패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도희 아나운서



노동법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김도희 학생

로스쿨 적응이 어렵지는 않았나?

모든 것이 성적으로 치환되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가장 힘들었다. 부끄럽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평평 울었던 적이 두 번 정도 있다(웃음). 힘들 때마다 뛰어난 학생들 틈에서 이만큼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곤 한다.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그 이유는?

민법이 정말 어렵긴 하지만 재밌고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자꾸 생긴다. 노동법은 사실, 남일 같지 않아서 공부하면서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다. 그런데 또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인지 노동법 과목인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 두 과목 다 A+를 받았다(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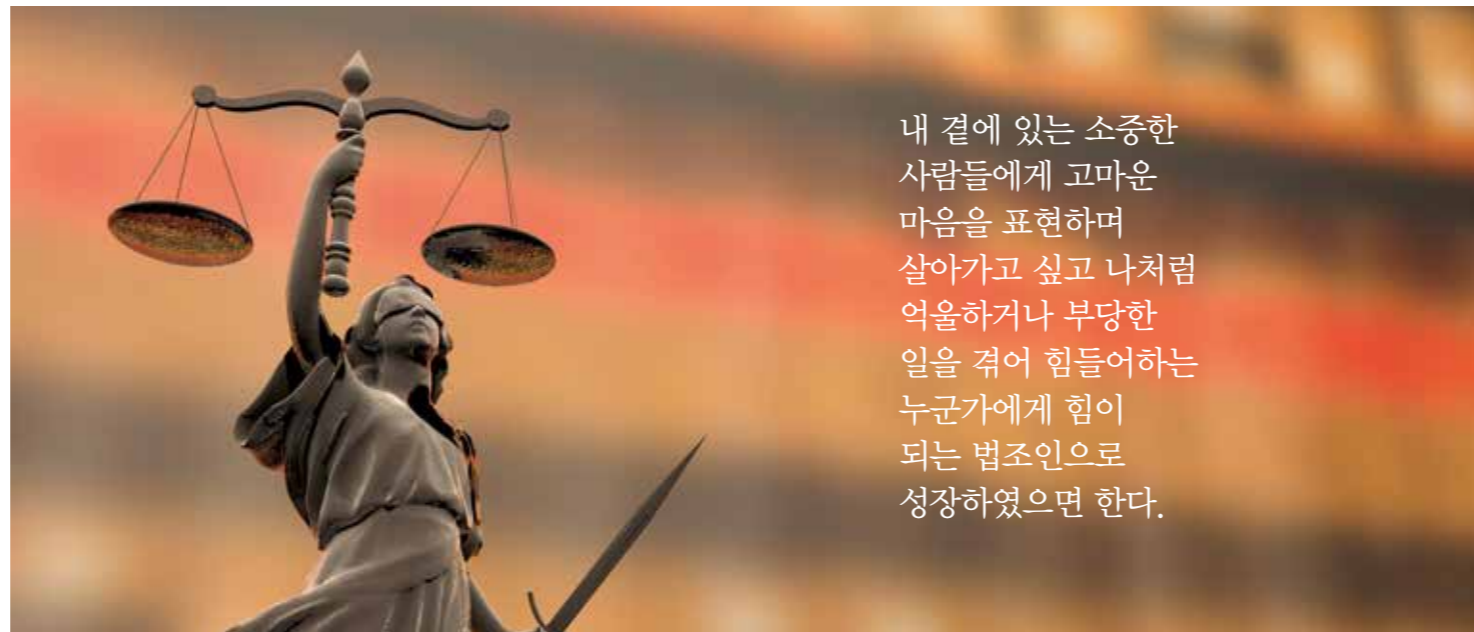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서지현 검사님과 김선수 대법관님을 존경한다. 서지현 검사님은 2018년 여름, 서울에서 열리는 인권법캠프 특강을 들으러 가서 만나 뵈게 되었다. 힘들지만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의 의연함과 숙연함이 느껴졌고 검사님께서 희망을 잃지 말라는 응원을 해주기도 하셨다. 방송국을 상대로 싸우기에 앞서 두려움이 매우 컸는데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김선수 대법관님은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약하던 시절부터 동경해 왔던 분인데, 2019년 여름, 노동법연구회 부회장으로서 노동법학회원들과 함께 만나 뵈는 일이 있었다. 논리

적인 변론과 소탈한 인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았던 강건함, 끈기를 본받고 싶다.

지난 1월에 진행된 가인법정 변론 경연대회에서 4등상을 비롯해 개인 최우수상의 영예까지 안았다.

1학년 때 “로스쿨생이면 가인대회는 한번 나가봐야지” 하는 남자친구의 꾀에 넘어가 덜컥 참가를 했는데, 예선 통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싶고 나처럼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였으면 한다.

어느덧 로스쿨 3학년이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또는 멘탈 관리 비법이 있다면?

사실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게 최선 같다. 소송을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안면통증이 찾아온 적이 있다. 병원 6곳을 다니다가 증상이 사라진 했는데, 그 시기에 매일 108배를 하면서 간절히 빌었던 기억이 난다. 가벼운 스트레스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시작 전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풀곤 한다.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그 어떤 방송국도 보도하지 않는 방송국 내부의 갑질과 횡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노동청의 내사종결, 검찰의 불기소처분, 재판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느꼈던 제도 및 절차상의 불합리함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싶다. 방송국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무력감을 느꼈고, 6년을 몸담았던 회사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다.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컸지만 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것 같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싶고 나처럼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였으면 한다.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은가?

나의 프로필 문구는 ‘순간순간에 충실하길’이다.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힘들어하기보다는 멀리 내다보며 순간순간을 잘 보내자는 마음이 들곤 한다.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는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려 한 것 같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지 않을까?(웃음)

로스쿨 신입생이 된다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

어느덧 10년째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학생들은 어떻게 배우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지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된다. 현실에 펼쳐지는 법조세상과 로스쿨의 문제나 한계에 따른 절망하면서도 언제 순탄하고 완전하였던 시절이 있었느냐고 자위해 보면서 만일 로스쿨 신입생이 된다면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상상해 본다.

이전에는 법조인이 될 생각이 없었어도 공부를 좀 한다는 이유만으로 법대에 진학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의 로스쿨 신입생들은 모두 법조인이 되겠다는 결심이 있기에 로스쿨 생활을 시작하는 마음가짐은 분명하다고 본다. 그렇기에 로스쿨 학생들은 모두 예비법조인이라고 불려도 되겠다.

1. 예비법조인으로서 키워나가야 할 덕목

법조인이 가져야 하는 덕목을 로스쿨 신입생 시절부터 갖추기 위해 키워나간다면 로스쿨 생활도 더욱 알차고 자신감도 넘치리라 기대된다.

첫째로 균형감각이다. 법은 구성원의 다수가 동의하여 만든 생활지침이며,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수단이어서 대부분 합리적이다. 그래서 법을 배우는 학생도 이를 이해하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편향된 사고가 아니라 균형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대립하는 원고와 피고가 있고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원고대리인과 피고대리인으로 나뉘어 법적 다툼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일반 당사자와 달리 법을 알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능력과 함께 다툼의 해결에 유용한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공부를 하다보면 학설에서도 주관설이나 객관설보다는 보통 절충설이 다수설이 되는 이치

도 여기에 있으며, 어떤 법칙이나 쟁점에 대해 애매모호가 아니라 원리에 입각한 원칙과 예외로써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최소한의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 법조인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법적 다툼에 뛰어들고 일반인들과 달리 중요한 위치에서 결정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런 정의감이 없이 단순한 법률기술자로 법을 농락할 수완만 있다면 본인은 당장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사회의 큰 해악이 될 뿐이다. 양심도 없이 출세나 돈을 위해 법공부를 시작할 바에야 차라리 빨리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길 바란다. 지금도 법조인이라면서 정의를 핑개치고 양심에 반하는 저급한 언행을 일삼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격하게 되는지 모르겠고, 예비법조인이 저들을 따라갈까 두렵기조차 하다.

셋째로 성실성이다. 이는 법조인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매우 중요하다. 성실하지 않으면 도둑질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 머리가 좀 둔하고 여러 부족함이 있더라도 결국 최후로 성공하는 자는 가장 성실한 자이다. 로스쿨 3년에 법이론과 실무능력까지 갖추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물론 어렵지만 인내하며 성실한 자는 당연히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2. 로스쿨 생활에서의 바람직한 모습

로스쿨 3년 동안의 생활에서 유념하여야 하는 것으로 첫째, 당연히 건강이다. 건강은 그야말로 최고의 실력이고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해낼 수가 없다. 공부할 시간은 없어도 내일 당장 시험이 아니라면 건강을 위한 운동시간을 아끼워하지 말아야 한다. 취침시간을 정해 두듯이 하루에 일정 시간은 건강을 위해 비워 두어야 하

고, 식후에는 무조건 조금이라도 걷기를 바란다. 계속 앉아서 책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다가 걸으며 머리 속으로 혹은 독백으로 차분히 정리하다보면 더 쉽게 이해되고 오래 간직하게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로스쿨에서 건강관리를 잘 해서 오히려 앞으로 더 힘든 법조생활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과 충실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는 건강을 위해서도 좋겠지만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미 규칙적인 생활이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 더없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조금씩 고쳐서 나아져야 한다. 습관은 정말 무섭다. 첫 수업시간에 지각하는 학생은 마지막 시험시간에도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성취가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었으면 앞으로 좀 더 높은 계획도 쉽게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사고와 생활의 단순화이다. 법학공부를 통해 인간과 세상을 두루 섭렵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장애가 되는 잡다한 것들을 당분간 멀리하여야 한다. 집안의 대소사에 끼여들지 말고, 친구들과의 모임 등에도 양해를 구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괜한 고민거리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슬럼프 해소책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즐거운 일도 오래 지속하게 되면 지겨울 수밖에 없고 회의감이 몰아칠 때가 있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잘 해오던 취미생활이나 이성교제, 같은 로스쿨 학생들과의 수다 떨기, 시험 직후 떠나는 여행 등 자신만의 해소책이 있으면 이를 통해 슬럼프를 조금이라도 쉽게 극복하거나 최소한 덜 주눅들게 될 것이다.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피해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관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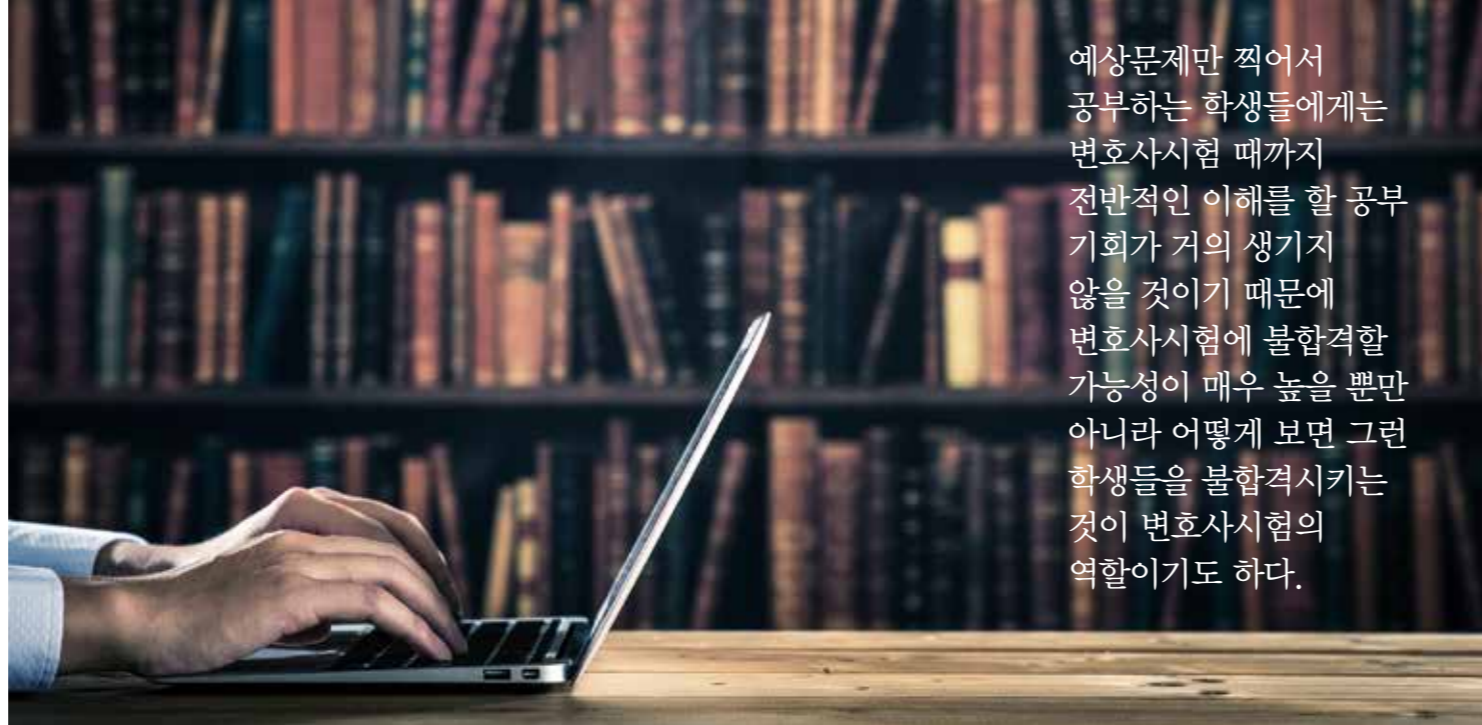
3. 로스쿨의 공부방법에서 참고할 사항

로스쿨에서의 공부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들었을 것이고 대학까지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래도 몇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없지 않다.

첫째로 재학 중인 로스쿨의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무난히 합격하기 위한 공부이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시행착오를 겪으며 변호사시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당장 이번 학기 수강할 강의와 교수에 대한 분석부터 3학년 때 실시되는 모의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과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살펴볼길 권한다. 로스쿨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로스쿨 2학년 1학기까지 전체 3학기가 끝나면 기본과목의 강의를 대부분 마치게 된다. 이론상 변호사시험을 칠 부분에 대한 공부가 완료된 것이다. 실제로 로스쿨에서 실시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등을 통해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나 그 변형된 문제를 상당히 경험하였을 수도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러한 분석

은 로스쿨에서의 선배나 동기들을 통하거나 여러 참고문헌, 변호사시험 합격기 등을 이용하여야 하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공부방법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속 수정하면서 자신만의 정수를 찾아내고 확고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둘째로 전반적인 이해와 집중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시험공부이고 3년이란 짧은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먼저 기본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처음부터 문제집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교과서와 문제집의 차이를 떠나 해당 과목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가능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로스쿨에서 수강하는 과목의 담당 교수가 정해진 교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문제는 그 교재가 자신에게 맞으면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로스쿨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보거나 자신에게 맞는 책을 법학도서관 등에서 찾아 서로 비교하며 공부하는 것이 매우 좋다. 사실 어떤 책의 해당 부분을 열심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책의 해당 부분을 읽어보면 의외로 쉽게 이해되고 간과하였던 중요 부분을 챙길 수도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예상할 능력까지 생기게 되며, 실제로 상당 부분 적중하게 된다. 시험은 예상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거의 완벽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험생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도 기본적인 내



예상문제만 짚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변호사시험 때까지 전반적인 이해를 할 공부 기회가 거의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학생들을 불합격시키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역할이기도 하다.

용은 쓸 수 있어야 합격하는 것이다. 이게 순리이고 공부의 정석이다. 로스쿨에서의 중간시험 등에서조차도 공부 분량이 많다면 예상문제만 짚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변호사시험 때까지 전반적인 이해를 할 공부 기회가 거의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학생들을 불합격시키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역할이기도 하다.

셋째로 로스쿨과 로스쿨 교수들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한다. 모든 로스쿨에는 법학도서관에 풍부한 책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개인좌석과 스터디룸 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로스쿨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로스쿨 교수들의 강의에 집중하여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교재나 로스쿨 선배, 동기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해당 과목의 교수에게 물어보는 것이 최고이다. 교수에게 묻기 위해서는 나름 고민을 먼저 하게 되므로 질문 후에 얻게 되는 이해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된다. 그리고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과정에서 엄청난 공부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 교수들도 강의준비를 열심히 하게 되고 더욱 알찬 강의와 지도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 중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로스쿨 학생들이 인터넷강의 등을 보조자료 정도로 활용하

지 않고 제대로 분별도 없이 로스쿨 교수들의 강의를 무시하는 상황이 깊어진다면 로스쿨 교육 정상화는 더욱 요원할지도 모르겠다.

넷째로 로스쿨 동기들 사이의 스터디 그룹을 통한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 과목별, 단계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함께 공부하게 되면 약간의 시간소모가 있기도 하지만 서로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하거나 자료를 교환하면서 공부하게 되면 혼자 공부하기 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것이다. 비슷한 입장에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공부 후의 식사모임 등을 통해 힐링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슬럼프에 잘 빠지지 않도록 예방까지 하게 되고 슬럼프를 빨리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로스쿨에서의 강의는 기본적으로 교수의 강의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므로 토론이 잘 되지 않지만 스터디 그룹을 통한 공부는 학생들의 열띤 토론이 가능하게 되어 로스쿨 교육을 상당히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그냥 듣기 보다는 자신이 떠들어 본 내용이 진짜 자기 것이 된다. 그리고 로스쿨 내의 학회나 스포츠, 취미, 종교모임 등에도 자신의 취향에 맞게 부담없이 1~2개 가입하여 활동하면 로스쿨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고 로스쿨 선배들과의 교류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공부와 관련된 자신의 약점이 크게 고민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글씨가 너무 안 좋아서 스스로도 자신이 쓴 내용을 해독하기 어려울 정도이거나 글씨를 쓰는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문제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한자로 된 법전을 읽을 수가 없거나 답안지 작성요령에 대해 자신이 없다든지 하는 여러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않고 고민만 하면서 그냥 가지고 가면 최종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한 자심감이 결여되어 자신의 실력조차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자신의 큰 약점이라도 처음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씩 고쳐나가고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약점이 있으면 하루빨리 인식하고 고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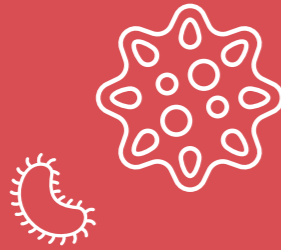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사건과 입법에 관한 언론기사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법학공부는 교과서와 문제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사건이 많고 입법도 빈번하여 사회가 온통 거대한 법률기사가 될 때가 많다. 로스쿨에서 배운 법률지식이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재미와 함께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산지식으로 깨치고 단련될 것이다. 올해 변호사시험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출제되기도 하였다.

4. 결론

여러 조언을 나열해 보았지만 사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결국은 실천의 문제이다. 누가 더, 그리고 얼마나 잘 실행에 옮기는지에 따라 법조인으로서의 인격과 실력이 판가름 나게 된다. 그리고 로스쿨에서의 동기들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평생 함께할 동지들이다. 법조인으로 나가보면 정말 놀랍게도 같은 법조인인 그들을 통해 사건을 선임하는 기회도 생기게 될 것이다. 그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이끌어주는 가운데 어려운 로스쿨에서의 생활을 힘차게 극복해 나가리라 확신한다.

끝으로 로스쿨 신입생들이 장차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 후배들과 이 사회를 위해 로스쿨제도를 포함한 전체 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크게 노력하여 주시길 간곡히 희망해본다.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1월초 국내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는 대한민국의 일상을 바꿔 놓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사람이 몰리는 장소엔 사람들이 드물었고 버스나 전철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 공공장소엔 손 세정제가 비치되었고 곳곳에서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철저한 개인위생 덕분에 매년 겨울 유행하는 식중독도 줄고 독감 환자들도 대폭 줄었다. 감염을 줄이는데 코로나19가 큰 역할(?)을 한 셈이다. 하지만 개인위생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놓친 것은 없었던 것일까? 이번 신종 코로나를 계기로 잘못된 위생의 오해와 진실을 통해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감염성 질환에 대비해보자.



이진한 기자

소속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학력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 통합의학과 박사
 수상 2016년 제9회 건강의학기자상
 2015년 제1회 대한폐암학회 언론상
 경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

1. 마스크는 N95 이상을 사용해야 감염성 질환을 막을 수 있다(X)

마스크는 N95, N97 등 숫자가 커질수록 미세한 먼지나 바이러스를 막는데 용이하다. 하지만 마스크 필터 두께도 같이 증가해 그만큼 호흡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 N95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기준으로 0.02~0.2 μm의 바이러스를 95% 차단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보건용 마스크(KF80) 정도면 충분하다. 코로나19는 독감바이러스처럼 공기 중의 감염이 아닌 비말감염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0.1 μm 이하로 작지만 비말에 묻어서 옮긴다. 비말의 크기는 6 μm로 큰 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가 다시 양성으로 판정돼 슈퍼전파자로 큰 우려를 나타냈던 8번 환자는 100여명 가까운 접촉자가 있었지만 그의 주변에 한명의 감염자도 없었다. 심지어 보호자로 늘 항상 같이 있었던 아들조차 감염이 되지 않았다. 기자가 담당 주치의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환자는 증상이 나타날 때부터 줄곧 일반마스크(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 마스크는 누구나 사용하는 것이 좋다(X)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굳이 마스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는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사안이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물론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즉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거나 △의료기관 방문자나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된다. 마스크 사용 시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3. 바이러스는 따뜻해지면 더욱 활발해진다(X)

바이러스는 지카바이러스, 황열바이러스처럼 여름철에 활발한 것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추운 겨울철에 왕

성하게 활동하는 바이러스다. 코로나19 말고도 겨울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노로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이 모두 겨울철에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킨다. 이 중 영하 20도 이상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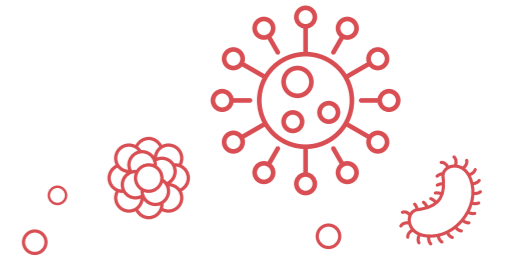
따라서 이들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을 피하려면 특히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앞뒤, 손가락 사이 사이를 빠짐없이 씻도록 한다. 특히 음식을 조리하기 전, 배변 전후, 설사가 있는 사람을 간호한 경우, 외출 직후, 아기 수유하기 전, 기저귀 교체 전후에는 손을 더욱 깨끗이 씻어야 한다.

4.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도 오래 산다(X)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손잡이나 딱딱한 고체에 정착하면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코로나19를 대상으로 실험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는 손잡이에서 2~8시간 생존이 가능하며 마스크에 묻었다면 4시간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손잡이나 마스크에서 묻은 손은 입안 또는 코 속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감염이 쉽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흐르는 물에 30초간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손 씻기를 잘하면 인플루엔자·A형간염·유행성 결막염·식중독 등 10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미국의 사협회지 논문으로는 제대로 손만 씻어도 폐렴과 설사질환 40~50%가 준다.

5. 손 소독제, 손 세정제가 비누보다도 좋다(X)

바이러스는 물이나 비누만 사용해도 잘 씻겨 내려간다. 하지만 항상 감염성 질환이 돌 때는 이러한 손세정제, 손 소독제가 날개 돋친 듯 팔린다. 손세정제는 비누와 비슷한 제품으로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다. 세정제엔 크로록시레놀, 이소프로필메틸페놀 등 살균성분이 있다. 액체나 젤 형태이며 샴푸처럼 거품을 내어 닦은 뒤 물로 씻으면 된다. 손소독제는 에탄올이 함유된 것으로 바이러스의 세포막을 에탄올이 파괴시킨다. 에탄올은 적어도 60% 이상이어야 소독 효과가 있다.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이다. 물로 헹구면



필요가 없어 물이 없는 장소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손소독제를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알코올 성분 때문에 건조해져 피부 손상이 생길 수 있다. 평소 피부건조증이 있거나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는 손 소독제 사용 뒤 보습제 바르는 것을 꼭 챙기도록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이 비누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과 예방엔 큰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자주, 잘 씻느냐다. '어떤 제품을 쓰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위생에 신경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6. 기침예절을 보면 손보다는 소매에 하는게 더 낫다(O)

손에 대고 기침을 하면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손잡이, 손수건 등 여기저기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옷소매보다 더 크다. 그래서 옷소매에 기침을 하라는 이야기다. 대개 소매와 손수건에 묻은 바이러스는 보통 3, 4시간 정도 살 수 있다. 비말이 묻은 옷이나 손수건이 다른 사람에게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세제로 세탁하면 바이러스는 사라진다. 가장 좋은 기침 예절은 휴지로 막고 바로 버리는 것이다.

7. 눈으로 감염이 되는 것은 주로 점막을 통해서다(X)

최근 중국으로부터 오는 여행객 중에선 눈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글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물안경을 끼는 경우도 있다. 이는 눈의 흰자위부위에 결막을 통해서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막부위에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폴로 눈병처럼 바이러스가 눈 점막을 침투해 아폴로 눈병을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감염 원인의 더 큰 이유는 눈물 흘리는 눈물길이 코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눈에 들어간 바이러스가 눈물길을 타고 코로 들어가서 호흡기 감염이 충분히 될 수 있다. 평소에 고글이나 물안경을 사용하기 보다는 평소에 손으로 눈을 직접 비비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눈이 건조하다고 생각되면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2020년도 제2,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합숙 진행



지난 2월 3일(월)부터 2월 6일(목)까지 나흘간 <2020년도 제2,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합숙 출제>가 진행됐다. 이번 합숙출제는 올해 8월과 10월에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것으로, 총 86명의 출제진이 참여했다. 최희수 원장(강원대/공법), 김재봉 원장(한양대/형사법), 권재열 원장(경희대/민사법), 이동원 원장(충북대/선택과목)이 영역별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순석 법전문대학원 이사장이 총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합숙기간 동안 출제진은 출제문항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최종 문항을 완성하였으며, 오는 7월과 9월에 시험 전 최종 검토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회 & 총회 개최

지난 2월 25일(화) 25개교 원장단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법전문대학원협의회 제48차 이사회 및 제51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제48차 이사회에서는 법전문대학원협의회 규정 개정 등이 진행됐다. 제51차 총회에서는 법전문대학원협의회 임원 선임, 2019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2021학년도 법전문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2020학년도 법전문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임 원장 취임



ALL ABOUT LAW SCHOOL

로스쿨 인사이드



법학적성시험 개요

1. 법학적성시험(LEET)이란?

-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법학적성시험 성적의 활용

-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정에 따라 학부 성적, 어학 성적, (심층)면접, 자기소개서 등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필수요소의 하나로 활용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생선발))

3. 법학적성시험 점수 체제

- 성적 제공: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은 표준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백분위만 제공함. 영역별 합산점수는 발표하지 않으며,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논술영역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답안의 채점여부 및 활용방법을 정한다.
 - * 표준점수: 표준점수는 원점수에 해당하는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로서, 원점수의 분포를 영역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도록 변환한 분포 상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 * 백분위: 백분위는 영역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로서, 해당 수험생의 백분위는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이다.

4.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교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문항형태
1	언어이해	30	09:00 ~ 10:10 (70 분)	5지선다형
2	추리논증	40	10:45 ~ 12:50 (125분)	5지선다형
점심 시간			12:50 ~ 13:50	
3	논술	2	14:00 ~ 15:50 (110분)	서답형
계	3개 영역	72문항	305분	

5. 시험 일시 및 장소

-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20. 7. 19.(일)에 실시함.
-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함.
- '서울'의 경우,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3지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별 수용인원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수험표 출력 시(7.6.~7.19.) 배정된 학교 확인

6.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주요 일정

일자	주요 내용	비고
2020.01.14.(화)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계획 공고	
2020.05.26.(화)~06.04(목) 18:00	원서 접수	http://www.leet.or.kr
2020.07.06.(월)~07.19(일)	수험표 교부	
2020.07.19.(일)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2020.08.18.(화)	성적 발표	http://www.leet.or.kr
2020. 8월말 예정	공동입학설명회 개최	

7. 응시수수료

-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만 8천 원임.
- 응시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음.

※ 응시수수료 면제, 편의지원 사항 및 기타 수험생 유의사항은 6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제 기본 방향 및 문항 유형

가. 공통 사항

-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나. 언어이해 영역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함
- 문항 분류표

내용 영역	문항 유형			
	주제, 구조, 관점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1) 주제, 구조, 관점 파악

- 제시문의 주제나 구조와 전개 방식 또는 제시문에 소개된 인물(글쓴이 포함)이나 이론의 관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2)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 및 정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른 표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3) 정보의 추론과 해석

- 제시문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통하여 정보가 가지는 적합한 의미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4) 정보의 평가와 적용

- 제시문에 주어진 논증이나 설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제시문에 소개된 원리를 새로운 사례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다. 추리논증 영역

-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함

- 문항 분류표

내용 영역	추리		논증		
	언어 추리	모형 추리	논증 분석	논쟁 및 반론	논증 평가 및 문제해결
논리학·수학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1) 언어 추리

- 함축 및 귀결: 제시문의 정보로부터 함축되는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함
- 원리 적용: 규범 및 규칙이나 일반 원리를 해당되는 사례에 적용하여 올바르게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함
- 사실관계 추리: 부분적인 정보나 증거가 주어질 경우 이로부터 특정한 사실관계를 추리하거나 특정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함

(2) 모형 추리

- 형식적 추리: 주어진 전제들로부터 형식논리의 추론규칙을 이용해서 연역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거나, 어떤 주어진 논증이 타당하기 위해 보충해야 할 전제를 찾는 능력을 측정함
- 논리게임: 제약조건 하에서 올바르게 항목을 배열하거나 연결하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제시된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수리 추리: 수, 도형, 표, 그래프로 표현된 비언어적 정보로부터 간단한 수리 연산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함

(3) 논증 분석

- 명시적 요소 분석: 논증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장들 중에서 전제들과 결론을 찾아내고, 전제들이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 암묵적 요소 분석: 논증이나 추리과정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생략된 전제들을 찾아내어 완전한 논증이나 완전한 추리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구조 분석: 논증 전체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4) 논쟁 및 반론

- 논쟁 분석 및 평가: 논쟁의 쟁점을 파악하거나 공통의 가정 내지 전제를 파악하며, 논쟁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반론 구성: 주어진 논쟁의 상황에 참여하여 한쪽 입장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오류: 잘못된 논증을 분석하여 논증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5) 논증 평가 및 문제해결

- 논증 평가: 주어진 논증의 적절성과 설득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강화 또는 약화: 새로운 정보나 증거의 추가가 기존의 논증을 강화 또는 약화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문제해결: 옳다고 믿는 가설과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어떤 상황을 예측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예측이 틀린 역설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라. 논술 영역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함
- 평가 목표 분류표

내용 영역	인지 활동 유형	분석		구성			
		논제 분석	사례 분석	논증	비판	전개	표현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복합							

(1) 분석

- 논제 분석: 주어진 논제의 의도와 그것이 요구하는 과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사례 분석: 주어진 사례를 이해하고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2) 구성

- 논증: 논리적으로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함
- 비판: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평가 및 판단 능력을 측정함
- 전개: 심층적 및 독창적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함
- 표현: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함

[언어이해] 2020학년도 출제문항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일상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짐에 따라 법정에서 과학 기술 전문가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유전자 감식에 의한 친자 확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범죄 수사 등은 이미 낯설지 않고, 최근에는 연륜연대학에 기초한 과학적 증거의 활용도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연륜연대학이란, 나이테를 분석하여 나무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과학이다. 온대림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수목은 매년 나이테를 하나씩 만들어 내는데, 그것의 폭, 형태, 화학적 성질 등은 수목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나이테의 폭은 강수량이 많았던 해에는 넓게, 가물었던 해에는 좁게 형성된다. 따라서 연속된 나이테가 보여 주는 지문과도 같은 패턴은 나무의 생육 연대를 정확히 추산하기 위한 단서가 된다.

[A] 2005년에 400개의 나이테를 가진 400년 된 수목을 베어 냈는데, 그 단면에서 1643년부터 거슬러 1628년까지 16년 동안 넓은 나이테 5개, 좁은 나이테 5개, 넓은 나이테 6개 순으로 연속된 특이 패턴이 보였다고 하자. 한편 인근의 역사 유적에 대들보로 사용된 오래된 목재는 나무의 중심부와 그것을 둘러싼 332개의 나이테를 보여 주지만 베어진 시기를 알 수 없었는데, 만일 그 가장자리 나이테에서 7개째부터 앞서의 수목과 동일한 패턴이 발견된다면 그 목재로 사용된 나무는 1650년경에 베어졌고 1318년경부터 자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나아가 그 목재를 유적의 기둥 목재와 비슷한 방식으로 비교하여, 나이테 기록을 보다 먼 과거까지 소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나이테를 통한 비교 연대 측정은 예술 작품이나 문화재 등의 제작·건립 시기를 추정하는 과학적 기법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종종 법률적 사안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수목으로 소유지 경계를 표시하던 과거에는 수목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형사 사건에서도 나이테 분석을 활용한 적이 있다. 1932년 린드버그의 아기를 납치·살해한 범인을 수목 과학자인 콜러가 밝혀낸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범행 현장에 남겨진 수제 사다리의 목재를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언제 어느 제재소에서 가공되어 범행 지역 인근의 목재 저장소로 운반되었는지를 추적하는 한편, 용의자의 다락방 마루와 수제 사다리의 일부가 본래 하나의 목재였다는 사실도 입증해 냈다.

나이테 분석의 활용 잠재성이 가장 큰 영역은 아마도 환경 소송 분야일 것이다. 과학자들은 나이테에 담긴 환경 정보의 종단 연구를 통해 기후 변동의 역사를 고증하고, 미래의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데 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나이테에 담긴 환경 정보에는 비단 강수량이나 수목 질병만이 아니라 중금속이나 방사성 오염 물질, 기타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 여부도 포함되므로 이를 분석하면 특정 유해 물질이 어느 지역에 언제부터 배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넓은 의미의 연륜연대학 중에서 이처럼 수목의 화학적 성질에 초점을 맞춘 연구만을 따로 연륜화학이라 부르기도 한다.

[B] 한편 과학 기술 전문가의 견해가 법정에서 실제로 유의미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점은 나이테 분석도 마찬가지다. 법원에서는 전문가의 편견 및 오류 가능성이나 특정 이론의 사이비 과학 여부 등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이테 분석을 통한 환경오염의 해석은 분명 물리적 환경 변화의 해석에서보다 고려해야 할 변수도 많고, 아직 그 역사도 상당히 짧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 기법이 환경 소송을 주재할 법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과학 기술적 토대를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31. <성적 산출 기준>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교수가 수업 시간에 문제1과 문제2의 두 문제로 구성된 쪽지 시험을 실시하고 그 채점 결과로 성적을 산출한다. 각 문제의 채점 결과는 정답, 오답, 무답 중 하나만 가능하다. 정답, 오답, 무답에 따른 다음의 <성적 산출 기준>을 반영하여 각 학생에게 A, B, C, D 중 하나의 성적을 부여하고자 한다.

<성적 산출 기준>

- 문제1과 문제2의 채점 결과가 모두 정답이면 A를 부여한다.
- 문제1의 채점 결과가 정답이 아니고 문제2의 채점 결과도 정답이 아닌 경우 D를 부여한다. 단, 이때 문제1과 문제2의 채점 결과 중 적어도 하나가 무답이 아니면 풀이 내용에 따라 C를 부여할 수도 있다.

- ① 甲이 C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B를 받을 수 없다.
- ② 乙이 두 문제 모두 무답으로 제출한 경우 반드시 D를 받는다.
- ③ 丙이 B를 받았다면 두 문제의 채점 결과 중 반드시 어느 한 쪽이 정답이어야 한다.
- ④ 丁의 답안지에서 문제1의 채점 결과가 오답, 문제2의 채점 결과가 정답이면 C를 받을 수 없다.
- ⑤ 戊가 문제2를 무답으로 제출한 경우, 문제1의 채점 결과가 정답이 아닌 한 B를 받을 수 없다.

[정답] ④
 [문항 유형] 논리학 · 수학 - 모형 추리
 [난이도] 상

[논술] 2020학년도 출제문항

1. 제시된 <조건>에 따라 <사례>를 논평하십시오. (900~1200자, 50점)

〈 조건 〉

1. 아래 <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관점>을 모두 반박할 것
2. 각 <사례>에 나타난 쟁점을 발견하고, 선택한 <관점>에 따라 각 <사례>의 법적 판단을 평가할 것
3. <관점>을 활용할 때는 ㉠, ㉡, ㉢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 사례 1 〉

중세 말 X국은 최고 법전인 치국대전(治國大典)에서 형법의 개정을 금지하고, 대신 형법전에 '마땅히 처벌할 만한 행위에는 유사한 조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었다. X국 사람인 甲은 화약을 사사roi 제조하여 화적때에게 팔아넘기려다 발각되었다. X국의 형법전에는 사인(私人)이 화약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없었다. X국 병기장이 화약 제조에 관한 신기술을 외국에서 수입 하였던 까닭에 개인이 화약을 밀조하는 상황을 형법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법원은 논의 끝에 형법전 상 동전 또는 달력 위조죄를 이 사건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X국에서 동전의 주조나 달력의 제작은 국가가 독점해 왔다. 경제적 신용 수단으로서 화폐의 공급은 국가의 전권에 속하기 때문에 조폐청에서 동전의 주조를 전담하도록 하였고, 달력은 농사 일정에 관련되어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일기청에서만 제작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화약을 사사roi 제조하는 행위를 동전 또는 달력의 위조와 같이 국가의 전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보고 甲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 사례 2 〉

Y국 사람인 乙은 돈을 걸고 전통적인 카드 게임을 하다가 종교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Y국의 헌법에 의하면 법원은 종교법 사건에서 종교법 위원회의 판단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Y국 종교법에는 '화살 던지기 내기'만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화살 던지기는 일곱 걸음 거리에서 통에 화살을 던져 넣어 승패를 결정하는 게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 널리 알려진 도박 행위의 하나였던 화살 던지기 내기는 세월이 흐르면서 도박의 대명사가 되었다. 乙은 종교법이 금지하는 내기는 화살 던지기뿐이므로 카드 게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다. 또한 카드 게임의 승패는 화살 던지기와 달리 실력과 훈련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제정 당시의 기록을 검토한 종교법 위원회는 종교법이 내기를 금지한 이유가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데에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위험이 있는 모든 내기는 금지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乙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 관 점 〉

〈관점 ㉠〉

입법자가 모든 사례를 고려할 수는 없어, 처음부터 완벽한 법이란 존재하기 어려워. 그런 까닭에 다양한 역사적 자료나 유사한 입법례를 통해 입법자의 본래 의도를 발견해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관점 ㉡〉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언어의 사전적(辭典的) 의미가 가장 중요해. 사람들은 통상 그런 의미로 법을 이해하거든. 그런 점에서 언어의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관점 ㉢〉

사회적 상황이나 판단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사전적 의미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야. 그리고 법의 제정 시점보다 법의 적용 시점에서 합당한 것으로 수용된 견해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문항 유형] 사례형
 [난이도] 중

로스쿨 입학 꿀팁 모음. zip

박상호 성공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자기소개서든, 어떤 면접이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다. '왜 법조인을 꿈꾸는지', '그에 대한 열망은 얼마 만큼인지', 또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답을 하려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진학 이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소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면접의 경우 같은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끼리 스터디를 꾸려서 기출문제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연습해보기를 권한다. 연습할 때부터 실제 시험장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



유금성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직장인이라면, 게다가 야근이 많다면 다른 수험생들보다 시간이 부족하다.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건 확실히 단점일 수 있지만,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에 있어서는 직장인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특히 고된 직장생활을 견뎌내고 쓰는 자기소개서는 내용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일을 하면서 활동 반경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므로 자기소개서에 담기는 내용도 풍부해진다. 면접도 자신감을 갖고 임하기를 바란다.



김현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직 법조인이 아닌 입장에서 법조인이 되겠다고 명확하게 서술하는 게 추상적이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살아온 삶에 비춰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을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번의 수정을 거듭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근사한 자기소개서가 완성된다. 면접은 스터디에 가입하여 준비하면 좋는데, 스터디도 계속 하다보면 팀원들끼리 익숙해지기 때문에 교차 스터디를 권하고 싶다.



권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부분은 출제자와의 '핀트'를 맞추는 일이었다. 축적된 지식을 평가하는 다른 여러 시험과는 달리 리트는 독해력, 사고력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준비하기도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애매하다고 느꼈다. 기출 문제를 몇 번 풀어보면서 느낀 것은, 전체적인 논리 구조나 주어진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표현 한두 개를 출제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해서 틀리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었다. 사전적 의미와 엄밀한 논증을 고수할 것인지 혹은 일상적인 의미와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을 받아들일 것인지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소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엑셀을 이용해서 살아온 시간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했다. 내 삶에 있어서 굵직하거나 의미 있는 사건들을 연도별로 열거한 후, 비슷한 카테고리끼리 묶어봤는데 자기소개서 작성이 보다 수월해졌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막연해서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다. 또 면접을 준비할 때 롤플레이밍은 효과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그럴 때는 영상으로 면접하는 모습을 촬영해 볼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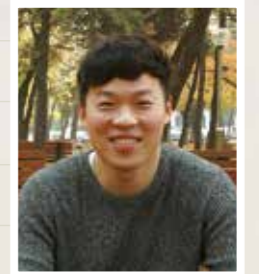
김민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직장을 다니고 있어 다른 친구들처럼 스터디를 할 엄두는 내지 못 했지만 시사이슈와 뉴스를 눈여겨보면서 개인적 견해를 정리해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발전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인지 고민했다. 한 쪽의 의견만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중도를 지키면서 최소한의 포기할 수 없는 인간성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했고,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이 면접시험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



이수호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신의 추구하는 법조인의 모습과 이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역량과 이에 부합하는 학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대 학생의 경우 역대 입학자들 중 해외대 학생들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동입학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또한 정량지표가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량 점수를 바탕으로 '어떻게' 로스쿨에 입학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아인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 개별입학설명회와 재학 중인 선배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입학설명회에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항목별 분량을 조정하였고, 재차 강조해야 할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법원에 재학 중인 선배들로부터 학사시스템이나 특징점과 같이 세부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를 지원동기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



김지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입학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화제판결'들을 모아놓은 신문 기사들을 틈틈이 챙겨보았는데, 그러한 판결 자체가 면접에서 출제된 것은 아님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법학을 접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일견 불합리해 보이는 판결들이 어떠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검토를 통해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나름 고민해 봄으로써, 면접장 내에서 제시받은 낯선 주제에 대해서도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유정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로스쿨 선배들은 물론이고 공대, 의대에 다니는 분들에게도 첨삭을 부탁했다. 그들은 나오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되고했다. 면접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 논리를 펼쳐나갈 때 단순하게 자신의 논리만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에 대한 반박과 다시 그 내용을 반박하는 것까지 덧붙여 답하는 것이 좋다.

박정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은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에서 하나의 주제를 고른 뒤 모의면접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 면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 힘과 순발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되 무리한 논리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김육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량평가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 추세대로라면 자기소개서의 영역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개성이 강해서 위험 부담이 있는 자기소개서보다는 오래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진중한 자기소개서를 쓰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문장의 조응관계를 유심히 살피고, 표현에 있어 비문이나 유행어가 있지는 않은지 살폈다. 단순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보다는 구체적인 과목, 학점을 꼼꼼히 적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분명히 적었다.

정성용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트 시험 이후 스터디를 조직하여 서로의 자기소개서를 돌려가면서 첨삭을 받았고, 면접도 실전처럼 진행한 후 구성원의 피드백을 통하여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습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처음보다 한층 자연스러운 자기소개서와 면접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반하여 준비해야 한다.



김선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관련 책자보다는 신문 읽기는 추천한다. 신문을 읽다가 모르는 내용은 바로바로 찾아보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또 면접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의 경우 익숙한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조금 더 생각한 후 답할 것을 권한다. 잘 알려더라도 시간을 갖고 머릿속으로 차분하게 정리한 후,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김우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의 경우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지문에 나오는 단어의 개념과 범위, 유사하지만 다른 단어와의 차이,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예민하게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추리논증은 논리학 문제, 논증 문제, 수리추리, 논리게임 문제 모두 풀이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있지만 무조건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을 익힌 후 이를 바탕으로 기출 문제를 꼼꼼히 분석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강유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을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출문제'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중에 판매하는 서적을 통해 면접을 준비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 제출 후 면접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 학교마다 출제유형과 선호주제가 다르다. 따라서 지원하지 않는 학교의 기출을 풀거나 일반적인 토론주제를 가지고 면접을 준비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학교의 문제로 연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지면상 25개 로스쿨 학생의 입학수기를 모두 담을 수 없었습니다
※ 로스쿨에 재학 중인 선배들의 생생한 입학 수기를 더 보고 싶을 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info.leet.or.kr>) - 자료실 - <로스쿨 창>

로스쿨 개요

» 입학정원

정부의 엄격한 설치인가 심사를 거쳐 전국의 총 25개 대학(정원 2,000명)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됐다.

구분	수도권 (15개교)	지방권 (10개교)
국·공립대	강원대(40), 서울대(150), 서울시립대(50)	경북대(120), 부산대(120), 전남대(120), 전북대(80), 제주대(40), 충남대(100), 충북대(70)
사립대	건국대(40), 경희대(60), 고려대(120), 서강대(40), 성균관대(120), 아주대(50), 연세대(120), 이화여대(100), 인하대(50), 중앙대(50), 한국외대(50), 한양대(100)	동아대(80), 영남대(70), 원광대(60)

※입학정원 : 명

» 교원

- 전임교원 수 20인 이상 확보
- 교원 1인당 학생 수 12명 이하
- 실무경력교원(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실무경력 5년 이상) 20% 이상 확보



모의법정



법학전문대학원 전용도서관



개인 열람실

개인 열람실

» 교육 시설

- 단독 건물, 강의실(대형 강의실 1개 이상 포함), 모의법정, 정보통신시설, 교원연구실, 세미나실, 연구소, 휴식공간 등
- 법학전문대학원 전용도서관: 전자저널을 포함한 학습저널 3개국 30종 이상 확보
- 학생 1인당 실 면적 12㎡ 이상 확보
- 열람실 보유: 편제정원의 70% 이상을 한 번에 수용(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1인 1석 제공, 사물함 배치)

» 전용 기숙사 시설

- 전체 학생 중 54.8% 기숙사 시설 사용 가능(현재 학교별로 최고 19.4% ~ 최대 166% 확보)

» 학생 지원

- 전체 운영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 55% 미만으로 유지
- 로스쿨이 학생에게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투자
-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30% 이상
- 리걸클리닉(학생들이 실제사건 법률상담 진행) 및 연구소 운영

교육과정 소개

» 교육과정의 특징

이론과 실무의 융합

- 법률가로서의 자질이 되는 공법, 형사법, 민사법 등 기본과목과 기초법, 외국법, 비교법 등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 선택과목을 통하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 배양
- 배양된 법률지식과 소양이 현실적인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실무경력 교원을 통하여 다양하고 충실한 실무교육을 제공

학제적·종합적 교육

- 문답이나 토론 등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업으로 기존의 강의 방식과 차별화
- 교과과정 중 다수의 과목에 있어서 경제학, 정책학, 철학, 인류학, 여성학, 역사학 등 관련 과목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 의료 등 인접 분야의 융합을 추구함

공익과 직업윤리 강조

- 법률전문지식 이외에도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률가로 교육함
- 교과과정 중 법조윤리 및 공익인권 관련 과목들을 다수 편성함

» 교육과정 개요

이론 교육

- 기본법학 : 법률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능력을 기르는 과목

과 목	내 용
공 법	헌법 및 행정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민사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항목

- 기초법학 및 인접과목 : 인간, 역사, 사회와 연관된 법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과제에 대한 새로운 법 형성과 법 발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목

과 목	내 용
기초법학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비교법학 등
인접과목	법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영역(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

- 전문법학 : 전문적인 지식과 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으로 기업법무, 국제적 법률관계 등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 중 기존 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

실무 교육

- 필수실무(5개) : 실무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시키고 기본 법학과목에서 습득한 법원칙과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

과 목	내 용
법조윤리	법률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위준칙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개설된 과목
법률정보의 조사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사용하는 방법, 외국의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과목
법문서의 작성	법률전문가의 필수적 자질인 법률문장 작성방법을 익히게 하고, 소장, 준비서면, 법률의견서, 신청서 등 다양한 형태의 법문서 작성법을 가르치는 과목
모의재판	헌법, 민사, 형사재판에 관한 모의적인 상황 속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재판실무에 관한 기초적인 기능을 가르치는 과목
실습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자를 면접, 상담, 설득하는 방법이나 교섭, 조정, 중재 등 분쟁해결방법론(ADR)의 이론과 실무를 역할학습을 통해 가르치는 로어링(Lawyring) • 변호사 교원의 감독, 지도 아래 구체적 사건을 접하게 하여 법률상담, 사건 내용의 예비적 청취, 관계법령의 조사, 문제 해결안의 검토 방법을 가르치는 클리닉(Clinic) • 변호사 사무실, 기업의 법 관련 부서, 관공서의 법 관련 부서에서 연수를 하게 하는 인턴십(Internship)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에 규정됨.

» 특성화 프로그램

- 인적·물적 여건 및 지역 내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 25개 법학전문대학원별 다양한 특성화 분야가 교육과정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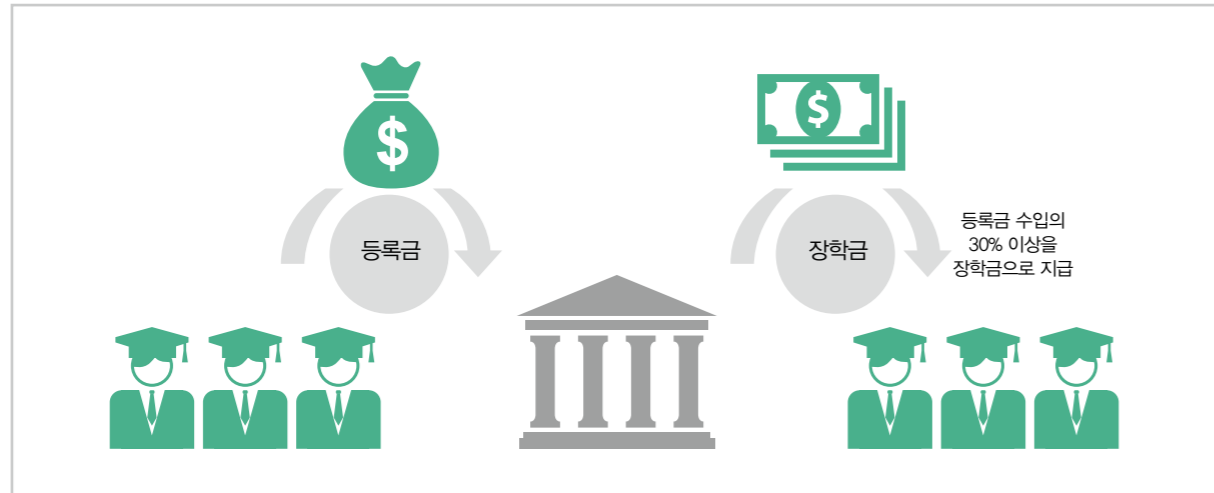
학교명	분 야	학교명	분 야	학교명	분 야
강원대	환경법	서울시립대	조세법	전북대	동북아법
건국대	부동산 관련 법	성균관대	기업법무	제주대	국제법무
경북대	IT법	아주대	중소기업법무	중앙대	문화법
경희대	글로벌기업법무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의료·과학기술과 법	충남대	지적재산권
고려대	GLP(국제법무)	영남대	공익·인권법	충북대	과학기술법
동아대	국제상거래법	원광대	의생명과학법	한국외대	국제지역법조인양성
부산대	금융·해운통상법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젠더법	한양대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산업법무, 공익·소수자인권법무
서강대	기업법(금융법)	인하대	물류법, 지적재산권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전남대	공익인권법		

»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 국제화 소양 함양을 위한 노력
- 3년의 교육과정 중 6개(각기 다른 과목) 이상의 외국어 강의 개설
- 풍부한 국제 강의 경력과 실무 경력을 갖춘 교원 확보
- 해외 교육기관과 MOU 체결 및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공동학위, 학술대회 및 연구 등)

장학금 제도

» 법전원의 장학 제도



-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명, 금액: 천원)

재학생 수*	등록금 총액	장학금	
		수혜인원(비율)	지원 금액(비율)
11,837	85,113,889	7,535 (63.7%)	29,505,021 (34.7%)

* 등록인원(1학기+2학기), 등록금 총액, 장학금 수혜인원, 지원금액 : '19.10.기준 이행점검 자료(대학 제출 자료 수합)

※ 총 등록금 851억 중 장학금 지급액은 295억원

»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세부 현황

(단위: 명, 금액: 천원)

장학금 수혜인원	장학금 총 지원액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기타 자체 장학금	
		인원	지원 금액(비율)	인원	지원 금액(비율)
7,535	29,505,021	4,610	22,480,175 (76.2%)	2,925	7,024,846 (23.8%)

» 2020년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올해 로스쿨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980명 전액 장학금 받아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을 지원한다. 장학금의 지원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이고,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교육부, '2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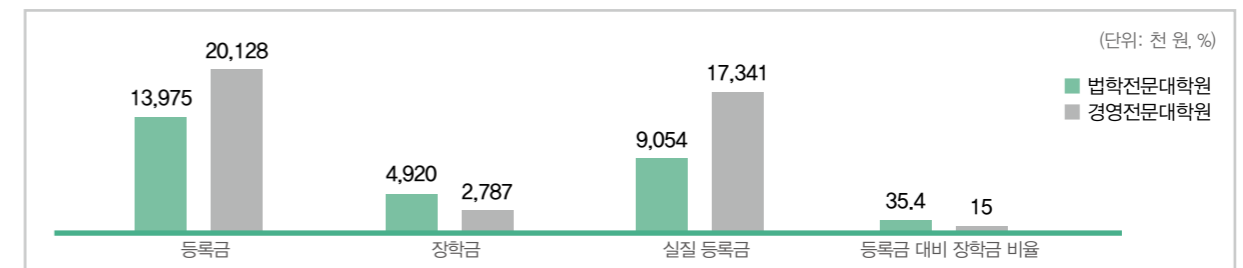
» 장학금 지원 순위

순위	지원 내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 등록금 100% 이상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3순위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4순위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5순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 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 학생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의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한다.

» 전문대학원별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 및 평균 장학금 비교('18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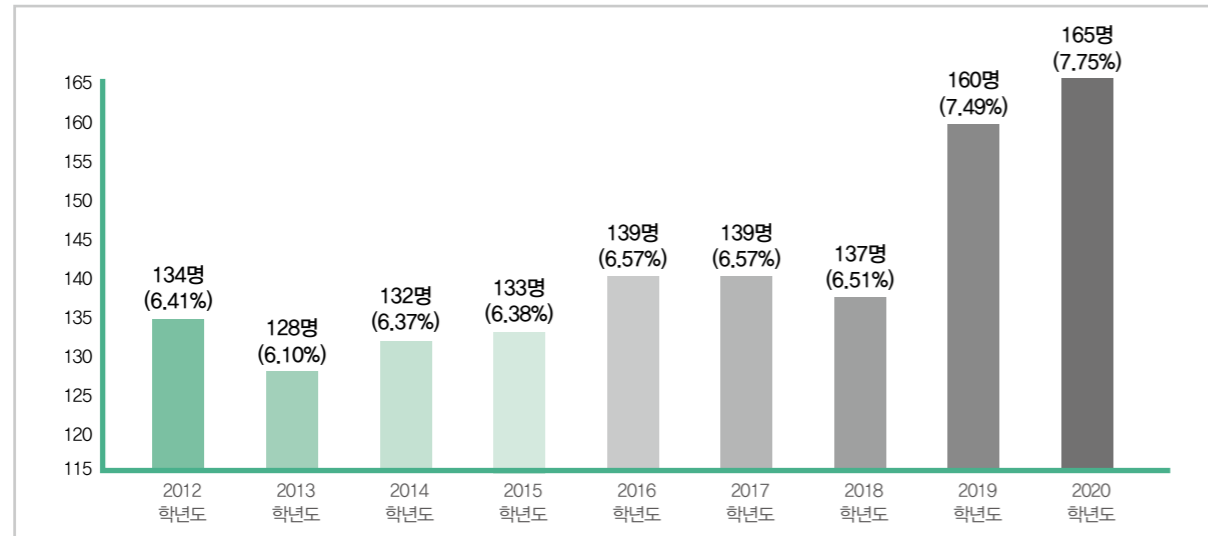
- 법학전문대학원은 경영전문대학원보다 등록금액이 적으나 장학금 비율은 월등하게 높아 실질 등록금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특별전형 /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 특별전형 제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사회적·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출신,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을 각 교 입학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특별전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인원: 1,632명(2009년~2020년)
- 선발현황



※ 2018학년도까지는 매년 5% 이상을 선발했으나, 2019학년도부터 입학자의 7% 이상으로 확대하여 선발하고 있음.

- 선발대상 : 신체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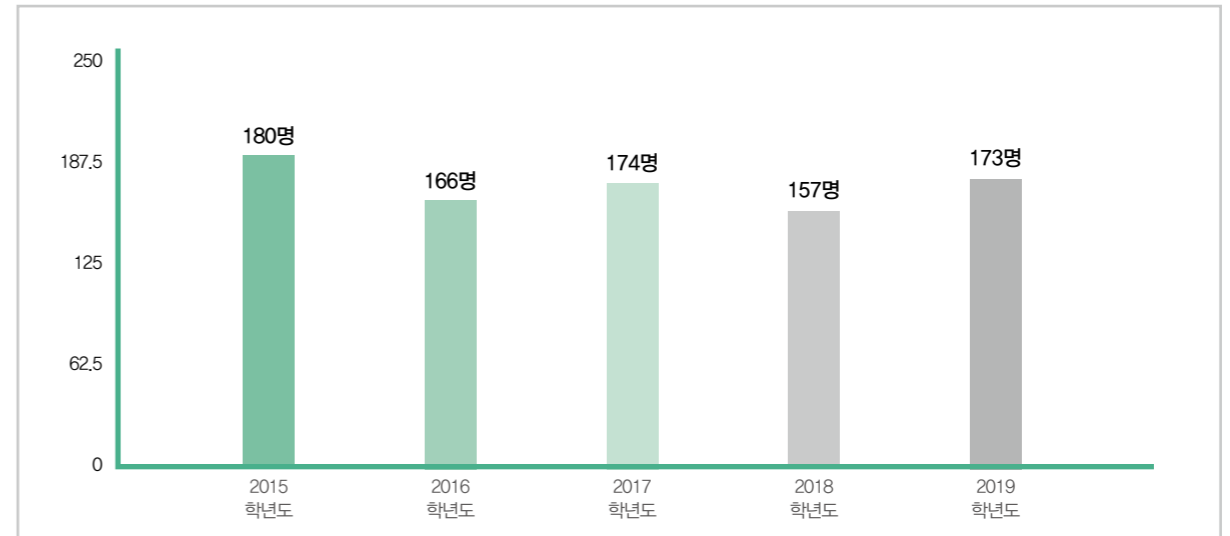
선발유형	공통기준
신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록자
경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사회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자) 또는 그 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자세한 사항은 각 교 모집요강 참고

»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다.

- 강원, 제주(2개교) : 입학정원의 10% 이상 선발
- 경북, 동아, 부산, 영남, 원광, 전남, 전북, 충남, 충북(9개교) : 입학정원의 20% 이상 선발



특별전형 입학자의 변호사 진출 사례

김재왕 변호사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김재왕 변호사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대학원 재학 중 나머지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 연구자의 길을 포기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4년간 전문 상담원으로 근무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장애인 인권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출처: 경향신문 2015-11-02)



박성민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는 카이스트 재학 시절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의대 2학년 시절 스키장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허반신이 마비됐다. 이후 의대 마지막 학년에 의사 국가고시와 함께 로스쿨 입학시험을 동시에 준비했다. 그리고 2019년 2월 전문의(직업환경의학과) 자격을 취득한 후 3월부터 법무법인 평안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박 변호사는 "국립재활원에서 중도장애인들이 신체적 고통 외에도 법적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법조계에 뜻을 두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무교육

» 기관별 실무수습 기회 제공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학생에게 다양한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무수습은 로펌, 법률사무소, 기업, 금융기관 등에서도 실시되는데 일부 학생은 실무실습을 통해 채용이 확정되기도 한다.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 체결기관(법원, 국회, 국세청,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방부 등) 로펌(김앤장, 세종, 광장 등), 법률사무소 등 기업(삼성, LG, KT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실습기간	동계/하계 방학 중 1주~4주
학점인정	학교별 1학점~2학점 인정

» 유관기관의 실무강의 지원

법학전문대학원은 판사, 검사 등 현직 법조인을 교원으로 활용하는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기관	과목명	파견인원(2019년도)	비고
법원행정처	민사재판실무(1학기) 형사재판실무(2학기)	30명	강의지원은 부장판사를 원칙으로 하며, 서울권역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이외 권역은 법전원 소속지역 법원 지법부장을 파견
법무부	검찰실무	16명	파견기간은 1년간으로 당해연도 2학기에서 차년도 1학기 또는 당해연도 1~2학기를 원칙으로 함
경찰청	경찰실무	8명	1학기 또는 2학기에 출강을 희망하는 법전원에 파견하여 운영

» 리걸클리닉을 통한 실무 능력 향상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란 학생들이 실무교수의 지도하에 지역 주민을 상대로 무료 법률지원과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실무능력을 기르는 제도다. 리걸클리닉 소송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비 없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법률상담(건)	1,284	2,147	2,204	2,080
소송참여(건)	235	240	424	334

변호사시험

시험 목적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검정	
응시 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단, 5년 내에 5회만 응시 가능	
시험 시기	매년 1월, 휴식일(1일) 포함하여 5일간 실시	
시험 과목	필수과목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 공법(헌법, 행정법) -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사례형(택1)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법조윤리	선택형 - 8월 중 별도 시행
합격 결정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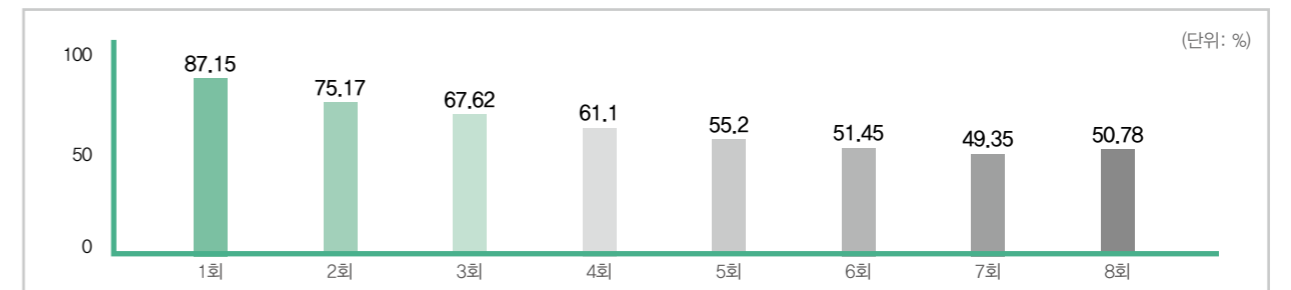
[참고]

변호사시험 통계 - 2019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합격률		성별 합격자		전공별 합격자		
	합격	합격률	남성	여성	법학 전공	법학 비전공	
합격	1,691명	50.78%	935명	55.29%	법학 전공	698명	41.28%
불합격	1,639명	49.22%	756명	44.71%	법학 비전공	993명	58.72%

[참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응시자 대비)



로스쿨 졸업생의 사회 진출

연도별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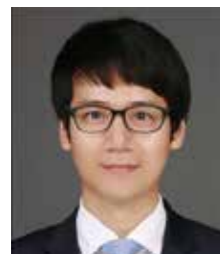
구분	'17년(6기)	'18년(7기)	'19년(8기)	계
취업대상자	1,396	1,360	1,428	4,184
취업자	1,256	1,280	1,351	3,887
취업률(%)	90.0	94.12	94.61	92.90

※ 취업자는 매년 2월 28일 기준으로 조사됨.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취업분야 현황

(단위 : 명)

기관	취업인원	기관	취업인원
법원	67	국가기관	33
검찰	54	지방자치단체	8
군법무관	95	공공단체	6
공익법무관	48	공기업	21
법무법인	674	사기업	86
공동법률사무소	117	기타	15
단독사무소	127	총계	1,351



서청운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다수결에 의한 권력이나 수시로 변화하는 여론에 좌우됨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소수의 편에 서지 않더라도 다수결로 대변되지 않는 소수자나 정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이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데, 이를 통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정호선 변호사 한국맥도날드

“사내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소송과 자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고 작은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의 다른 모든 부서에서 의뢰하는 내부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팀에 소속되어 다른 부서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프로젝트 초반부터 법률 리스크를 검토하여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계약서를 검토하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아영 변호사 20대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보좌관은 입법에 이르는 복잡한 정치과정을 온 몸으로 부대껴 가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보좌관의 업무는 각 의원의 의정활동 기초, 처해있는 상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여당인지 야당인지,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상임위는 어디이며 직업적 출신 배경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도, 그를 돕는 보좌관의 업무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국회라고 하면 한 덩어리로 생각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300개의 의원실은 300개의 서로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함혜란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 국선전담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이 임명하는 위촉 계약직이고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 고등법원별로 선발합니다. 해당 지방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가 되면 오직 그 지방법원의 형사재판 국선번호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월평균 30여건의 형사사건의 국선번호인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는 사선 형사번호인으로서의 역할과 동일한 일들을 수행합니다.”



이용해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저는 미디어산업과 관련된 10여 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문화콘텐츠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문화콘텐츠팀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D, 작가, 감독, 가수, 배우, 영화제작자 등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제작권설정, 방송포맷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상생협력, 미디어기업 투자파문, 미디어 업계 제작환경 개선 등 문화산업계가 막닥 드리는 법률적 쟁점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석순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재하는 사람입니다. 수사부터 시작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재판에 참여하며, 피고인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구하고 집행하죠. 제기한 공소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하지만, 수사를 해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할 때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검사의 임무입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검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결국 정의 실현을 뜻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 사법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 시험 일시, 장소 및 원서접수일

시험 일시	2020.07.19.(일) 09:00~15:50
시험 장소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
원서 접수	2020.05.26.(화) 09:00 ~ 06.04(목) 18:00 기간 내에는 24시간 내내 접수 가능(마지막 날 18시까지만 접수)

» 응시수수료

-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만 8천원임.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음.

» 응시수수료 면제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증빙서류를 지정한 기간에 제출한 자
- 신청방법
 - 1)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원서접수
 - 2) 상기 고시에 따른 증빙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020년 6월 2일 ~ 2020년 6월 4일[6. 4.(목) 우편소인까지 인정]
 -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서류만 인정, 방문제출 불가
 - 주소 : [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면제 담당자(02-888-2034)

• 증빙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접수번호 기재, 서명 또는 날인 必) 1부
- 응시수수료 면제 입증서류 1부 <수험생 본인 명의, ①~⑥ 중 택 1>
 - ① 수급자 증명서
 - ② 차상위계층 확인서
 -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 ④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부가급여 또는 차상위 해당자에 한함.)
 - ⑤ 차상위 본인부담감경대상자 증명서
 - ⑥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수험생 본인 명의의 "정부 및 공공기관 발급 문서"만 인정

» 응시수수료 반환

-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1) 접수기간 내 취소신청 :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접수마감일 6월 4일까지 : 100%(248,000원)
 - 2) 접수기간 이후 취소신청

구분	취소 기간	환불 금액
1차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간(6월 5일~6월 11일)	60%(148,800원)
2차	1차 기간 다음날부터 14일간(6월 12일~6월 25일)	50%(124,000원)
3차	2차 기간 다음날부터 시험 4일 전까지(6월 26일~7월 15일)	40%(99,200원)
최종	시험 3일 전부터(7월 16일~)	0%(반환불가)

» 문제 및 정답공개, 성적 발표

-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문제와 정답을 탑재하되 최종 확정된 정답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 후 공개함.
- 시험 성적은 8월 18일(화) 오전 10시에 발표되며 수험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하고 성적표를 출력할 수 있음.
 -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 성적으로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함.
 -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 및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음.
 - 수험생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위해 개별 학교에 제출한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협의회가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실제 성적과 상이한 경우,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심각한 부정행위"에 따른 조치를 취함.
 - 논술 영역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답안의 채점 여부 및 방법을 정함.

» 장애인 등 수험생 편의지원

- 대상 : 원서접수자 중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
 -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 임신부 등 기타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의 증빙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서류 접수 후 수험생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적절한 편의지원 제공

» 수험생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시험 당일 08:30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함.
- 매 교시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중간에 퇴실할 수 없음.
- 수험생은 시험 중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미디어플레이어 등 각종 전자·정보·통신 기기(저장장치 포함) 및 수험자료 일체, 메모지, 포스트잇, 책받침 등을 소지할 수 없음.
 -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

〈시험 중 물품 소지 관련 세부 안내〉

-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사용 가능하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전자시계(스톱워치, 수험용 시계 포함)의 사용을 금합니다.
- 귀마개는 소음 차단을 위해서 귀에 넣어 사용하는 소형 스피커 귀마개만 감독관 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렌즈가 무(無)색이 아닌 안경, 선글라스는 착용할 수 없으며, 안경에 별도의 장비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 감독관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시선을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모자, 천 등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스테이플, 자, 칼 등 문제풀이와 관계없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 수험생은 문제지 및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필히 준수하고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거리는 행동, 반복적인 헛기침 등)를 해서는 안 됨.
- 수험생은 수험표와 함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필히 지참해야 함.
 - ※ 수험표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를 통해 본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내용 그대로 출력하여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이면에 인쇄하거나 수험표 앞·뒷면에 임의의 표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 답안지에 정해진 표기, 답안 이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기도 해서는 안 됨.
- OMR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해야 함.
 -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OMR답안지에 연필 등 다른 필기구로 가표기 할 경우, 필기구에 상관없이 판독 시 이중표기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책임임.
- OMR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수정액 사용금지)만을 이용해야 하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임.
- 수험생이 희망하는 경우 답안지 교체 가능
- 답을 2개 이상 표기하는 경우와 불안전하게 표기하여 오류로 판독되는 경우 해당 문항은 '0점' 처리함.
- 논술답안지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하거나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수정해야 함.
 - 논술답안지에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 사용금지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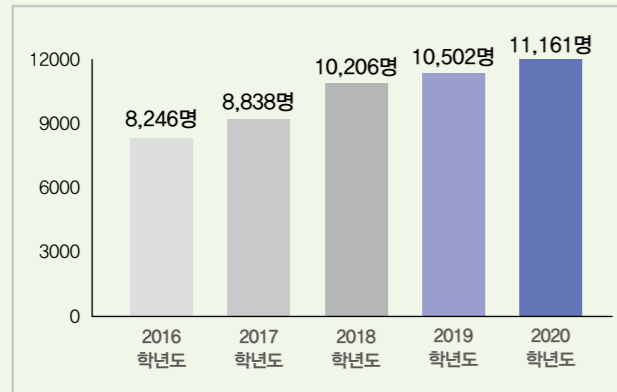
경미한 부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 시험 점수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여 지정된 시간 이후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경미한 부정행위
중대한 부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중대한 부정행위
심각한 부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 또는 형사상 조치 및 당해 연도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4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 -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어학 성적표, 학부성적표 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심각한 부정행위
기타 위와 유사한 심각한 부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시행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심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 • 개인의 의료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지참하여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마다 감독관이 검사한 후 승인한 경우에만 휴대가 가능함.

» 기타사항

- 시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참조하기 바람.

2020학년도 LEET 원서접수 결과

연도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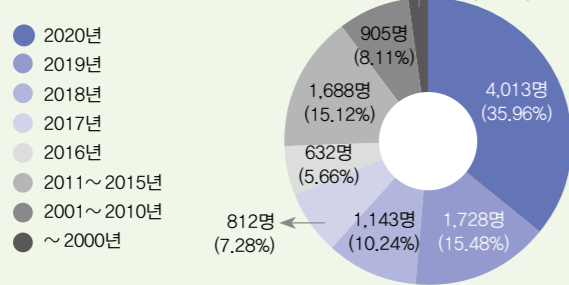


계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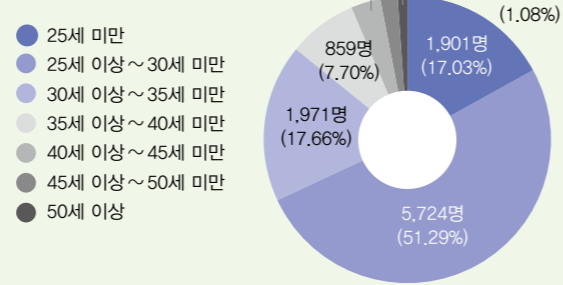
단위: 명 / %

공학	농학	법학	사범	사회	상경	신학	약학	예체능	의학	인문	자연	기타	총계
744	47	2,368	447	2,166	2,415	37	53	137	81	1,957	347	362	11,161
6.67	0.42	21.22	4.01	19.41	21.64	0.33	0.47	1.23	0.73	17.53	3.11	3.24	100

졸업연도별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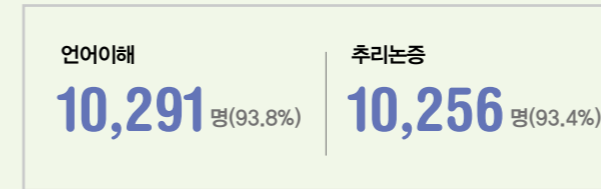
시험지구별

단위: 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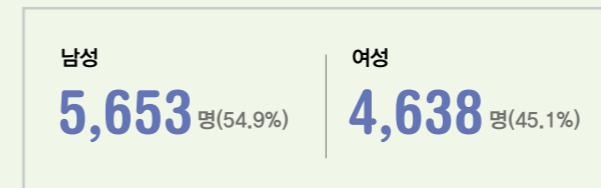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8,401	683	605	425	291	179	422	105	50
75.27	6.12	5.42	3.81	2.61	1.60	3.78	0.94	0.45

2020학년도 LEET 채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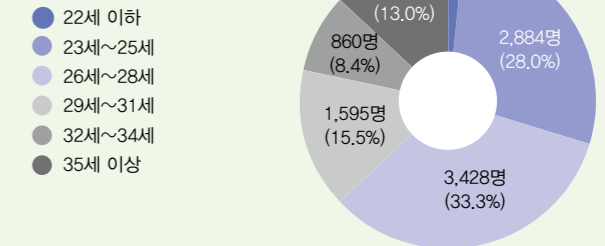
영역별 응시자 현황



성별 응시자 현황



연령별 응시자 현황



계열별 응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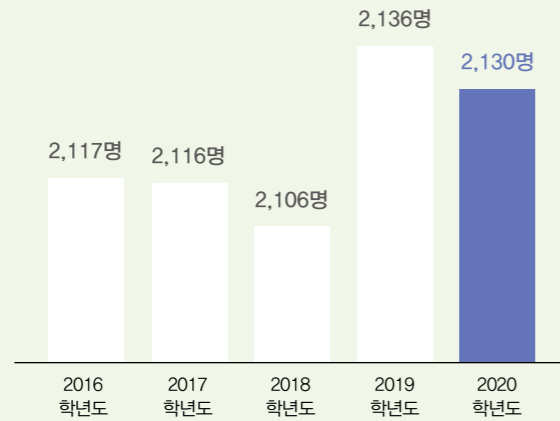
계열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언어이해 영역 응시자 10,291명 중에서 상경계열이 2,239명(21.8%)으로 가장 많았고, 법학계열 2,169명(21.1%), 사회계열 2,037명(19.8%), 인문계열 1,807명(17.6%), 공학계열 668명(6.5%), 사범계열 417명(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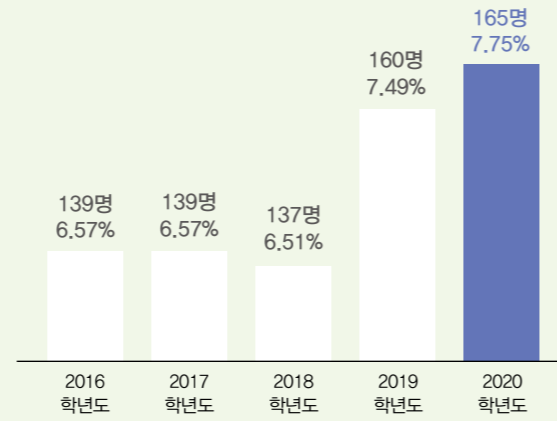
표준점수	언어이해			추리논증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90.0 이상 ~ 95.0 미만	-	-	-	8	0.1	0.1
85.0 이상 ~ 90.0 미만	-	-	-	55	0.5	0.6
80.0 이상 ~ 85.0 미만	-	-	-	193	1.9	2.5
75.0 이상 ~ 80.0 미만	-	-	-	834	8.1	10.6
70.0 이상 ~ 75.0 미만	1	0.0	0.0	890	8.7	19.3
65.0 이상 ~ 70.0 미만	65	0.6	0.6	1,832	17.9	37.2
60.0 이상 ~ 65.0 미만	245	2.4	3.0	1,317	12.8	50.0
55.0 이상 ~ 60.0 미만	1,283	12.5	15.5	1,889	18.4	68.4
50.0 이상 ~ 55.0 미만	1,462	14.2	29.7	963	9.4	77.8
45.0 이상 ~ 50.0 미만	2,679	26.0	55.7	1,147	11.2	89.0
40.0 이상 ~ 45.0 미만	1,641	15.9	71.7	480	4.7	93.7
35.0 이상 ~ 40.0 미만	1,285	12.5	84.2	419	4.1	97.8
30.0 이상 ~ 35.0 미만	1,136	11.0	95.2	135	1.3	99.1
25.0 이상 ~ 30.0 미만	345	3.4	98.6	80	0.8	99.9
20.0 이상 ~ 25.0 미만	124	1.2	99.8	11	0.1	100.0
15.0 이상 ~ 20.0 미만	15	0.1	99.9	2	0.0	100.0
10.0 이상 ~ 15.0 미만	3	0.0	99.9	1	0.0	100.0
5.0 이상 ~ 10.0 미만	7	0.1	100.0	-	-	-
계	10,291	100.0	-	10,256	100.0	-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자료

전체 합격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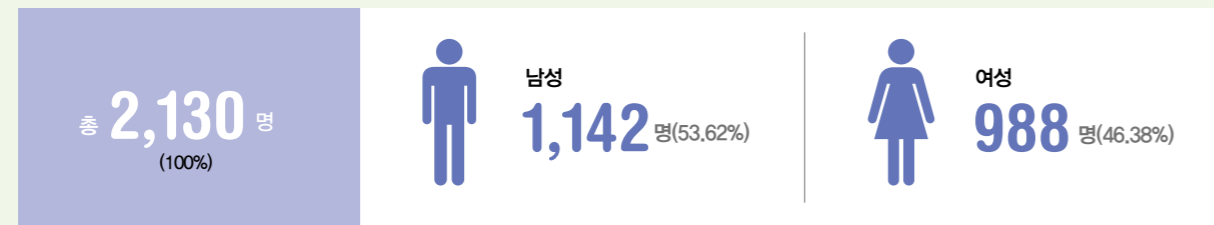


특별전형 입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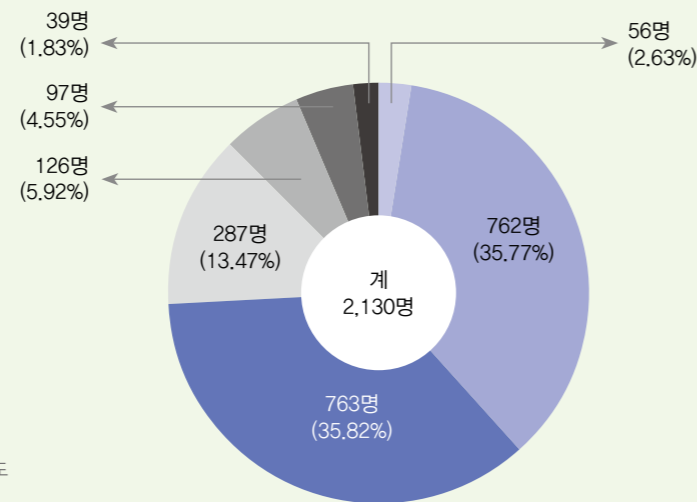
※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칙 등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성별



연령별

- 22세 이하
- 23~25세
- 26~28세
- 29~31세
- 32~34세
- 35~40세
- 41세 이상



※ 나이산출 : 2019-출생년도+1 또는 2020-출생년도

자교출신 VS. 타교출신 및 법학 VS. 비법학 합격자

구분	자교/타교 합격자 현황		법학/비법학 합격자 현황	
	자교	타교	법학	비법학
인원(명)	476	1,654	317	1,813
비율(%)	22.35	77.65	14.88	85.12

출신계열별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 계			비율 (%)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법학계열	177	105	282	26	9	35	203	114	317	14.88
사회계열	249	259	508	21	14	35	270	273	543	25.49
상경계열	264	202	466	24	10	34	288	212	500	23.47
인문계열	154	193	347	13	19	32	167	212	379	17.79
사범계열	41	64	105	3	0	3	44	64	108	5.07
공학계열	66	24	90	6	3	9	72	27	99	4.65
자연계열	31	31	62	4	3	7	35	34	69	3.24
의학계열	9	8	17	0	1	1	9	9	18	0.85
농학계열	7	3	10	0	0	0	7	3	10	0.47
약학계열	5	4	9	0	1	1	5	5	10	0.47
예체능계열	4	3	7	1	2	3	5	5	10	0.47
신학계열	0	2	2	1	1	2	1	3	4	0.19
기 타	34	26	60	2	1	3	36	27	63	2.96
계	1,041	924	1,965	101	64	165	1,142	988	2,130	100

최종학력별

대학교 졸업자가 1,146명(53.80%), 대학교 졸업예정자(2020년 2월)가 984명(46.20%) 합격하였다. 대학교 졸업자 중 석사학위 소지자는 40명, 박사학위 소지자는 4명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회계사 16명, 변리사 6명, 노무사 5명, 세무사 4명 등 전문자격 소지자가 합격하였다.(직업 및 전문자격 현황은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경쟁률

※ 접수기간 : 2019. 9. 30.(월), 09:00 ~ 10. 4.(금), 18:00

대학명	모집 정원							지원 현황							경쟁률							2019 학년도 경쟁률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합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합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합계	
강원대				37	3	40	40				191	14	205	205				5.16	4.67	5.13	5.13	5.35
건국대	37	3	40				40	143	11	154				154	3.86	3.67	3.85				3.85	3.28
경북대	55	5	60	56	4	60	120	188	15	203	213	12	225	428	3.42	3.00	3.38	3.80	3.00	3.75	3.57	3.88
경희대	55	5	60				60	363	27	390				390	6.60	5.40	6.50				6.50	7.83
고려대				111	9	120	120				313	34	347	347				2.82	3.78	2.89	2.89	3.23
동아대	37	3	40	37	3	40	80	322	30	352	343	19	362	714	8.70	10.00	8.80	9.27	6.33	9.05	8.93	8.73
부산대	65	5	70	46	4	50	120	212	12	224	160	14	174	398	3.26	2.40	3.20	3.48	3.50	3.48	3.32	3.03
서강대	18	2	20	19	1	20	40	190	19	209	293	9	302	511	10.56	9.50	10.45	15.42	9.00	15.10	12.78	7.33
서울대	139	11	150				150	544	64	608				608	3.91	5.82	4.05				4.05	3.30
서울시립대	45	5	50				50	220	31	251				251	4.89	6.20	5.02				5.02	5.32
성균관대				111	9	120	120				367	28	395	395				3.31	3.11	3.29	3.29	3.04
아주대	23	2	25	23	2	25	50	162	12	174	155	16	171	345	7.04	6.00	6.96	6.74	8.00	6.84	6.90	8.86
연세대				111	9	120	120				372	44	416	416				3.35	4.89	3.47	3.47	2.62
영남대	32	3	35	33	2	35	70	260	31	291	273	18	291	582	8.13	10.33	8.31	8.27	9.00	8.31	8.31	7.00
원광대	30		30	25	5	30	60	309		309	254	35	289	598	10.30		10.30	10.16	7.00	9.63	9.97	8.87
이화여대				92	8	100	100				371	28	399	399				4.03	3.50	3.99	3.99	4.15
인하대	21	4	25	25		25	50	116	17	133	156		156	289	5.52	4.25	5.32	6.24		6.24	5.78	6.64
전남대	51	9	60	60		60	120	189	43	232	243		243	475	3.71	4.78	3.87	4.05		4.05	3.96	4.30
전북대	37		37	37	6	43	80	237		237	250	33	283	520	6.41		6.41	6.76	5.50	6.58	6.50	6.49
제주대	18	2	20	19	1	20	40	67	4	71	83	3	86	157	3.72	2.00	3.55	4.37	3.00	4.30	3.93	3.63
중앙대	46	4	50				50	428	20	448				448	9.30	5.00	8.96				8.96	5.82
충남대	50		50	43	7	50	100	159		159	178	25	203	362	3.18		3.18	4.14	3.57	4.06	3.62	3.26
충북대	40		40	25	5	30	70	198		198	114	19	133	331	4.95		4.95	4.56	3.80	4.43	4.73	5.11
한국외대	46	4	50				50	177	15	192				192	3.85	3.75	3.84				3.84	4.92
한양대				92	8	100	100				301	29	330	330				3.27	3.63	3.30	3.30	3.47
합계	845	67	912	1002	86	1088	2000	4484	351	4835	4630	380	5010	9845	5.31	5.24	5.30	4.62	4.42	4.60	4.92	4.71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 2021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5월 중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 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전형 (모집군, 인원)	비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계 [합계]	2 단계 [합계]	선발 방법				
				1단계	2단계			
강원대 [환경법]	40 (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ET성적 : 150점 대학성적 : 100점 어학성적 : P/F 서류심사 : 70점 [합계 : 3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성적 : 320점 논술성적 : 50점 면접성적 : 50점 [합계 : 42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법학사 : 20명 이상 타 대학 : 24명 이상 지역인재 : 4명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33)250- 6503
건국대 [부동산]	40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ET성적 : 200점 대학성적 : 200점 어학성적 : 100점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7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성적 : 700점 논술성적 : 50점 면접성적 : 50점 [합계 : 800점]	정원의 300% 이상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법학사 : 1/3명 이상 타 대학 : 1/3명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2)450-3620
경북대 [IT]	120 (60/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ET성적 : 150점 대학성적 : 100점 어학성적 : 100점 서류면접 : 50점 [합계 : 4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성적 : 400점 논술성적 : 30점 면접성적 : 7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가군: 5명 ‘나군: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법학사 : 40명 이상 타 대학 : 40명 이상 지역인재 : 24명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53)950- 5452 입학관리처 : 053)950- 2763
경희대 [글로벌 기업법무]	60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ET성적 : 100점 대학성적 : 100점 어학성적 : P/F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3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성적 : 300점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4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가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법학사 : 21명 이상 타 대학 : 21명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2)961-9218
고려대 [국제법무 (Global Legal Practice)]	120 (0/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ET성적 : 200점 학부성적 : 200점 자기소개서 : 100점 어학성적 : P/F [합계 : 5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성적 : 500점 면접성적 : 100점 논술성적 : P/F [합계 : 600점]	정원의 300% 이내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법학사 : 1/3 이상 타 대학 : 1/3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2)3290- 1428 http:// kulaschool. korea.ac.kr
동아대 [국제 상거래]	80 (4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ET성적 : 300점 대학성적 : 100점 어학성적 : 200점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8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성적 : 800점 논술성적 : 100점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군별 3명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법학사 : 27명 이상 타 대학 : 27명 이상 지역인재 : 20%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51)200- 8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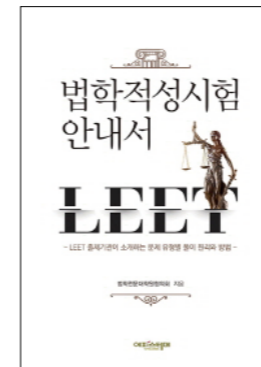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 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전형 (모집군, 인원)	비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계 [합 계]	2 단계 [합 계]	선 발 방 법				
				1단계	2단계			
부산대 [금융· 해운 통상법]	120 (70/50)	○ LEET성적 : 35점 ○ 학부성적 : 25점 ○ 어학성적 : P/F ○ 자기소개서 : 20점 [합계 : 80점]	○ 1단계 성적 : 80점 ○ 논술성적 : 10점 (‘가’군만) ○ 면접성적 : (‘가’군 : 10점, ‘나’군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특별 전형 4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가’군: 5명 ‘나’군: 4명)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 지역인재 : 2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51)510- 1727 입학관리과 : 051)510- 1215
서강대 [기업법 (금융법)]	40 (20/20)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P/F ○ 서류심사 : 20점 [합계 : 70점]	○ 1단계 성적 : 70점 ○ 면접성적 : 10점 [합계 : 8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2명 ‘나’군: 1명)	○ 비법학사 : 14명 이상 ○ 타 대학 : 20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705-7833, 8790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150 (150/0)	『일반전형』 ○ 어학성적 : P/F ○ LEET성적 : 60점 ○ 대학성적 : 60점 ○ 정성평가 : 80점 [합계 : 200점]	『일반전형』 ○ 1단계 성적 : 200점 ○ 면접 및 구술고사 : 50점 [합계 : 250점]	정원의 150% 선발 (특별 전형 3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11명 이상 (‘가’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880-7539
		〈특별전형〉 특별전형 선발 대상 및 기준 등은 전년도 모집 안내를 참고하되 추후 공지되는 2020학년도 모집 안내를 반드시 확인바람						
서울 시립대 [조세법]	50 (50/0)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15점 ○ 서류심사 : 15점 [합계 : 80점]	○ 1단계 성적 : 80점 ○ 논술성적 : 5점 ○ 면접 및 구술고사 : 15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특별 전형 4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가’군)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5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6490- 5070
성균관대 [기업법무]	120 (0/120)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30점 ○ 어학성적 : 5점 ○ 서류심사 : 20점 [합계 : 85점]	○ 1단계 성적 : 85점 ○ 면접성적 : 15점 [합계 : 100점]	정원의 25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나’군)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 LEET논술은 서류심사에 반영	법전원 행정실 : 02)760-0922
아주대 [중소기업 법무]	50 (25/25)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20점 [합계 : 70점]	○ 1단계 성적 : 70점 ○ 서면평가 : 15점 (서류10점/논술5점) ○ 대면평가 : 15점 [합계 : 1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군별 2명씩)	○ 비법학사 : 17명 이상 ○ 타 대학 : 17명 이상	법전원 교학팀 : 031)219- 1667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 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전형 (모집군, 인원)	비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계 [합 계]	2 단계 [합 계]	선 발 방 법				
				1단계	2단계			
연세대 [공공 거버넌스, 글로벌 비즈니스, 의료과학 기술]	120 (0/120)	○ LEET성적 : 150점 ○ 대학성적 : 150점 ○ 어학성적 : P/F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합계점수 : 400점 ○ 면접성적 : 50점 [합계 : 450점]	정원의 250% 내외 선발 (특별 전형 3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나’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 LEET 논술은 서류평가에서 검토함. ○일반전형은 영어성적 최저기준 적용	법전원 행정실 : 02)2123- 3801
영남대 [공익 인권법]	70 (35/35) ※결원 보충 1명	○ LEET성적 : 3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700점]	○ 1단계 성적 : 70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20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가’군: 3명 ‘나’군: 2명)	○ 비법학사 : 24명 이상 ○ 타 대학 : 50명 이상 ○ 지역인재 : 15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53)810- 2693
원광대 [의생명 분야]	60 (30/30)	○ LEET성적 : 4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20점 ○ 서류심사 : 20점 [합계 : 100점]	○ 1단계 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2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나’군)	○ 비법학사 : 22명 이상 ○ 타 대학 : 29명 이상 ○ 지역인재 : 12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3)850- 5083 입학관리처 : 063)850- 5264
이화여대 [생명 의료법, Gender 법]	100 (0/100)	○ LEET성적 : 60점 ○ 대학성적 : 40점 ○ 어학성적 : 30점 ○ 서류심사 : 50점 [합계 : 180점]	○ 1단계 성적 : 180점 ○ 논술성적 : 10점 ○ 심층면접 : 10점 [합계 : 200점]	정원의 30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8명 (‘나’군)	○ 비법학사 : 34명 이상 ○ 타 대학 : 3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3277- 2732
인하대 [지적 재산권, 물류법]	50 (25/25)	○ LEET성적 : 250점 ○ 대학성적 : 2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750점]	○ 1단계 성적 : 75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15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40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가’군)	각 군별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32)860- 7913,7920
전남대 [공익 인권법]	120 (60/60)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논술성적 : 50점 ○ 면접성적 : 5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가’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 지역인재 : 1/5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2)530- 2208 입학과 : 062)530- 4738
전북대 [동북아법]	80 (37/43)	○ LEET성적 : 30점 ○ 학부성적 : 15점 ○ 어학성적 : 10점 ○ 서류심사 : 10점 [합계 : 65점]	○ 1단계 성적 : 65점 ○ 논술성적 : 15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나’군)	○ 비법학사 : 28명 이상 ○ 타 대학 : 28명 이상 ○ 지역인재 : 17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3)270- 2661 입학관리과 : 063)270- 4744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 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전형 (모집군, 인원)	비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계 [합계]	2 단계 [합계]	선발 방법				
				1단계	2단계			
제주대 [국제법무]	40 (20/20)	○ LEET성적 : 35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5점 [합계 : 60점]	○ 1단계 성적 : 60점 ○ 면접성적 : 40점 - 서류심사 : 60점 - LEET논술 : 10점 - 구술고사 : 3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2명 ‘나’군: 1명)	○ 비법학사 : 35% 이상 ○ 타 대학 : 35% 이상 ○ 지역인재 : 1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4)754- 8373 입학관리과 : 064)754- 3994
중앙대 [문화법]	50 (50/0)	○ LEET성적 : 100점 ○ 학부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가’군)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4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820- 5422~4
충남대 [지적 재산권]	100 (50/50)	○ LEET성적 : 12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30점 [합계 : 350점]	○ 1단계 성적 : 350점 ○ 논술성적 : 20점 ○ 면접성적 : 40점 [합계 : 410점]	정원의 25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7명 (‘나’군)	○ 비법학사 : 42명 이상 ○ 타 대학 : 60명 이상 ○ 지역인재 : 20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42)821- 8507 입학과 : 1644-8433
충북대 [과학 기술법무]	70 (40/30)	○ LEET성적 : 150점 ○ 학부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60점 [합계 : 410점]	○ 1단계 성적 : 410점 ○ 면접성적 : 40점 [합계 : 45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나’군)	○ 비법학사 : 25명 이상 ○ 타 대학 : 25명 이상 ○ 지역인재 : 1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43)261- 2615 입학과 : 043)261- 3303
한국외대 [국제지역]	50 (50/0)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 논술성적 : P/F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가’군)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50% 이상	학사지원팀 : 02)2173- 2463 FAX : 02)2173- 2966
한양대 [국제소송, 지적재산· 정보, 공익·소수 자인권]	100 (0/100)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10점 ○ 서류심사 : 20점 [합계 : 80점]	○ 1단계 성적 : 80점 ○ 논술성적 : 10점 ○ 면접성적 : 1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8명 (‘나’군)	○ 비법학사 : 40% 이상 ○ 타 대학 : 4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2220- 2770 입학처 : 02)2220- 0078

※ 상기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_ 1단계 전형의 'LEET 성적'은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을 말하는 것이며,
 '논술'은 법학적성시험의 논술 영역을 의미하는 것임. (논술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 및 활용여부 결정함)
 ※ 개별 법전원은 '2020학년도 결원보충 인원'으로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2019학년도 재학생 중 발생한 결원 인원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순번대로 선발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법학적성시험 안내서 LEET



법학적성시험 출제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시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직접 기획하고 집필한 공식 안내서이다. 법학적성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세부 역량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영역의 문항 유형 및 문항 해결의 원리와 방법을 엄선된 예제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이미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선배들이 알려주는 공부 팁을 수험생 눈높이에 맞게 수록하여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할 때는 물론 추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할 때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저 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출 판 사	에피스테메
판매가격	19,000원
판 매 처	전국 오프라인 서점 및 온라인 서점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

이 책은 LEET 기출문제 공식 해설서로서, LEET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고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출제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연구사업단에서 기획하여 매년 펴내는 도서이다. 이번에 출간한 제10판은 LEET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 문제 및 이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영역별 최신 5회분(2020~2016학년도)과 과거 6회분(2015~2010학년도)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 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출 판 사	에피스테메
판매가격	8,000원('20학년도), 22,000원(합본)
판 매 처	전국 오프라인 서점 및 온라인 서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해 매년 3차례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 종료 후 영역별 문제와 해설집을 담은 해설집을 발간하고 있다. 문제별로 정답률을 수록해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역별 전문가의 해설을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제작대상	공법, 형사법, 민사법 - 선택형/사례형에 한함
판매가격	10,000원 택배비 4,000원(단, 4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신청방법	상시주문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에서 ① 교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awschool@leet.or.kr) 송부 ②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303-018484 삼영문화사 이준규)로 입금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www.khls.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ewha.ac.kr/>



인하대학교
<http://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www.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